



여성이 먼저 변하는 운동
남성과 함께 넓어지는 운동
사회속에서 높아지는 운동

성교육 특강 자료집

제대로 배워야 제대로 알고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쓴다



연세대학교 제8대 총여학생회

제대로 배워야 제대로 알고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쓴다.

-1995년 3월 6일 총여학생회 회의실에서

성교육 특강을 준비하는

김혜숙 선생님, 장영복 선생님

김은숙 학형(총여학생회 회장)

최인아 학형(총여학생회 학술국장)

이에진 학형(학술국원)

신유정 학형(총여학생회 환경국장)

이 함께 성교육 특강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는데

김은숙: 성 교육 특강을 마련한 취지는 우리 학교에서 마련된 여성학 강의들이 여성과 남성에 현실의 모습을 보여 주면서, 그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던져 주는데 그친다는 데서 시작됐어요.

이런 여성학 강의들과 변별, 담론이나 개념에서 벗어나 정확한 지식을 알려주고 그 지식을 통해 성의 신화를 벗어나 성에 올바른 지식을 알려주는데 있었어요. 이러면서 새로운 실천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구요.

장영복: 좋은 기회라고 생각 되요. 성을 가르치는 것을 금기시 했던 사회에서 성에 대해 바로 배우지 못했거든요. 자신의 상황만이 성이 아니라 사회 문화적인 부분까지도 이번 성교육 특강에서 다루었으면 좋겠어요.

X세대라고 불리는 요즘 젊은이들은 성을 드러내 놓는 것이 신세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듯하지만 올바르게 늘어 내놓기보다는 성을 난잡하게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낭비하는 듯이 보여요. 이런 낭비는 또다시 여성과 남성을 억압하는 결과를 낳죠.

제대로 된 성교육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김혜숙: 과도기적인 성문화죠. 서구화를 무조건 성을 개방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인지 성에 범람을 가져 왔는데 이것은 올바로 된 개방화라고 할 수 없어요. 성의 신화 -남자는 정력이 강해 질러면 어떻게 하면 좋다는 식의-가 범람 하고 있죠.

또한 성을 가벼운 흥밋거리 화시켜서 웃고 즐기는데 사용하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성에 대한 이중적 규범, 남성은 정력 제일의 교육, 여성은 순결 제일의 교육이 이러한 문제를 낳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올바른 성 교육을 통해서, 올바른 성지식을 갖고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가장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는 것이 필요하죠.

정상 비정상(변태)을 규정하는 것도 그렇죠.

성욕을 식욕과 달라서 파트너가 필요하죠. 그 성 파트너가 성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 행위를 하는 것이 당연하죠. 이 때 죄의식(Quity Feeling)을 느끼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상 성이 되겠죠.

체위가 어떻다, 이런 문제는 별로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죠. 제대로 된 성 교육은 사회 문화 도덕성 개발까지 책임 질 수 있죠.

김은숙: 여태껏 총여 학생회 사업은 여러 가지 시행 착오를 거쳐서 성에 대한 전문적 강의가 필요하다는 단순한 생각으로 시작했는데 선생님들 말씀을 들어 보니 단순하고 추상적이 우리, 총여학생회의 생각이 심화되어 지는 것 같아요.

김혜숙: 어려서부터 우리 나라의 교육은 성짓대가 사용되었죠. 남성은 여성을 성적 대상물(Sex Object)로 보도록 교육되어 졌고, 여성은 이러한 남성들에게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지 못했죠. 이러한 모습을 바로 잡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성의 문제도 있죠. 40대 여성들의 언어나 신체적으로 남성을 희롱하는 경우도 요즘에 많이 눈에 띄고 있어요.

최인아: 그것은 사회 속에서 남성이 올바르게 않는 성문화를 분출할 수 없는 여성들이 남성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해 가는 것 아닐까요? 그런 행위를 하는 여성들도 일그러진 성문화의 피해자라고 볼 수 있죠.

김혜숙: 욕구 분출 과정에서 남성은 어렸을 때부터 성적 욕구를 참는 훈련이 되어지 못했죠. 참는 훈련보다 좀더 강화되도록 길러졌고 여성은 성적 욕구를 갖는다는 것조차 금지하도록 길러졌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한 것이죠.

장영복: 사랑도 성도 다 배워 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잘 모르나 봐요.

제대로 배워야 제대로 알고,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쓰죠.

김혜숙: 성은 호르몬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호르몬의 지배를 받는 것은 하등 동물이고 고등동물은 호르몬이 아니라 뇌의 지배를 받죠. 하지만 이러한 것은 훈련을 통해 이룬 되는 것인데 이러한 훈련을 아무데서도 행하지 않고 있죠.

김은숙: 페미니즘이라는 것이 거대한 폭풍처럼 우리 사회를 강타하고 있는데 이런 바람에 호응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그것에 대한 反響도 존재하는 과도기라고 생각해요. 여성학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남녀를 단지 성대결로만 규정하는 것에 남성도 여성도 다 지쳐 갔죠. 그래서 여성학 하면 우선 반감을 갖는 사람들도 페미니즘이라는 폭풍이 거세지면 거세 질 수록 많아지는 것 같아요.

성교육 특강은 이러한 반향을 다시 돌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김혜숙: 물론 그렇게 돼야겠죠.

장영복: 성에도 서로에 대한 규칙이 있어야겠죠. 대부분 이러한 규칙은 사랑이 되겠죠?

김혜숙: 가장 간단한 기본은 성은 사랑의 도구로 쓰여져야 한다는 것이죠.

최인아: 이번 성 교육 특강을 통해서 성은 사랑의 도구로 사랑이라는 규칙을 통해서만 진정한 아름다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2만 연세 모두가 알아 갔으면 좋겠어요.

김은숙: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총여학생회도 또 두분 선생님들께서도 노력해 주세요.

이강의를 계획하며...

-제 8대 총여학생회 회장, 김은숙

안녕하십니까?

어느새 성큼 다가와 버린 새 학기를 준비하느라 모두들 들뜬 마음에 바빠지셨으리라 봅니다. 제 8대 총여학생회에서는 이번 겨울 방학 중에 실시한 성교육 특강에 대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선거 때 공약처럼 "성교육 특강"을 열게 되었습니다.

성교육에 대한 이번 설문지를 분석하면서 참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성이 성의 전부인 양 자신에게는 더 이상의 어떤 성교육도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기껏해야 국민학교, 중학교의 체육시가이나 가정, 생물시간에 배운 것이 고작인 사람들도 있었으며 여성학적 시작에서 바라보는 성교육은 무의미하다는 비판의 소리를 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좀 더 제대로 된 성교육이 자신들에게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미 올바른 성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이는 어쩌면 당연이 요구인지도 모릅니다.

성교육을 제대로 한다면 아마 우리는 태어나면서 부터 부모로 부터 시작해서 유치원,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걸쳐 수준을 높여가며 받은 것이 가장 올바른 교육일 것입니다. 하비남 우리의 현실을 보면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당장 이 문제를 개선해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인간에게 중요한 성을 올바르게 배우지 않고 넘어 갈 수는 없습니다. 늦었지만 대학에 서라도 성에 대한 제대로 된 교육과정이 필요하다고 않으십니까?

이번 성교육 특강의 경우, '여성학 발전소 위원회'에서 1년을 걸쳐 논의하여 여학생처와 총여학생회가 함께 준비하는 모든 연세인들에게 매우 의미 있는 자리일 것입니다.

보다 구체화된 여성학 커리를 학우들에게 제공하고, 그 만큼 다양한 강의를 통해 여성학의 넓은 이해를 피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저 학점을 따기 위한 보여주기 식의 강의참여가 아니라 진정으로 여성과 남성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자각하면서 이를 보다 깊이 있게 고민 할 수 있게 되고, 그 속에서 고민한 것들이 그 만큼 구체적인 대안으로 자신에게 되돌아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에게 열려 있는 실업강의로 이번 한 학기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이런 좋은 강의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한 혼자만 오셔서 듣고 가시 마시고 여러분의 여자 친구 남자친구와 함께 들으면서 올바른 성과 사랑에 관한 것을 함께 고민 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매우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여러분에게 필요한 내용만을 골라 강의를 준비하시느라 애써 주신 김혜숙 선생님과 장영복 선생님께 정말 대단히 감사합니다.

글을 실는 순서

성 교육 특강을 준비하며..... 1

총여학생회장 인사..... 4

성의 참 모습..... 6

성욕구

남성에겐 정력 제일 여성에게 무지 제일? 10

매춘이 사라지면 강간이 늘어간다?..... 17

성폭력의 잘못된 통념들..... 21

성폭력 무엇이 문제인가?..... 23

성과 사랑에 주인되는

민주 남성, 자주 여성..... 26

같이 읽기

광고에서 나타난 여성의 모습..... 31

언어에서 보여지는 여성 비하의 현실..... 35

그림으로 배워 보는 피임법 43

'성'(sexuality)의 참모습

'성'에 대해서 제대로 충분히 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삶의 전략이다. 어떤 문제건 그것에 관해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은 거기에 대처할 방안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뜻하며, 보다 잘 아는 사람의 뜻에 그대로 따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성'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습득하고 이해하기 이전에 "순결을 지켜야 한다"는 당위적인 규범만을 들어왔다. 하지만 순결을 지켜야 한다 혹은 지킬 필요가 없다는 말처럼 무의미하고 실속 없는 말이 또 있을까? 우리의 고민은 달리 시작되어야 한다. '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이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다. '성'은 성기나 성교, 남성이나 여성으로 성적인 정체성을 구분하는 의미라고 생각한다면, '성'에 대해 너무 좁게 이해하고 있는 셈이다. 성은 인간의 본성을 말하는 보다 넓은 개념이다. 성은 sex와 동의어가 아니라 영어로 표기하자면 sexuality라는 개념이 더욱 적합하다고 말할 수 있다. 성은 인간성의 중요한 부분이며, 인간의 이성이나 감성과 분리된 비인간적인 속성이 아니라, 인간을 더욱 인간답게 하고 인간의 생명을 창조하는 능력과 관련된 풍요롭고 아름다운 인간의 본성이다. 그러므로 성은 쾌락을 위한 수단도 아니고, 인간의 미치 진화하지 못한 동물적이고 열등한 속성도 아니다. 성을 우리의 자연스러운 본성으로 이해하고 생명과 힘, 그리고 열정의 자원으로 이해할 수 있다면, 성이 인간의 본성과 별개인 추하고 수치스러운 것이라는 통념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성관계는 성을 매개로 한 인간 관계이다.

성을 인간 본성으로 파악하는 관점에 섰을 때, 성관계가 성을 매개로 한 인간 관계라는 사실이 보다 명확해진다. 이성간에 이루어지는 사랑이란 단지 감각적인 느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확인되고 공유되는 서로의 의지와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유지되는 것이다. 이성간에 성관계를 갖는다는 것도 상호적인 인간관계의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순결을 바치는 것'은 성관계가 아니다. 마찬가지로 '순결을 빼앗는 것'도 성관계가 아니다. 성관계라는 말 속에 이미 나타나 있는 것처럼, 인간 관계로서의 성관계는 관계에 임하는 두 사람이 적극적으로 서로를 욕망하고, 서로의 행위에 동의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하지만 여성에게는 우선적으로 '순결'이 규범으로 제시되고, 남성에게는 '강한 정력'이 요구되는 우리의 성문화는 성을 매개로 한 인간 관계로서의 성관계를 갖는 것이 요원한 꿈처럼 느껴진다. 아마 아적은 뺏고 빼앗기는 성이 더 보편적이지 않을까?

욕망과 금기 사이에서

내가 인간임과 동시에 그저 무성적인 존재가 아니라 여성이라는 사실을 수용하는 것은 이렇게 혼란과 갈등으로 점철된 과정이었다. 여성이 성적으로 대상화되고 공격당하는 사회적 여건 속에서 여성의 성은 늘 '지켜져야 할 그 무엇'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성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를 갖기보다는 부정적이고 방어적인 인식이 더욱 강하게 심어진다.

그러나 성적으로 성숙해진다는 것은 여성으로서 생명을 창조하는 능력이 완성된다는 것을 뜻한다. 성적인 성숙이 생명 창조와 연결되는 것은 남성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우리는 성과 생명을 연결시키기보다는 성을 더러움과 연결시키는 것에 더욱 익숙해 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아직 정리된 성의식 없이 우리는 또 다른 변화 앞에 서게 된다. 그것은 '사랑'이라는 과제다. 1990년대를 사는 우리에게 사랑은, 손잡는 것도 큰 사건이었던 과거의 낭만적인 연애의 각본은 더 이상 아니다. 손을 잡는 것은 기본이고, 거리에서 이별을 아쉬워하며 살짝 키스하는 모습도 흔히 볼 수 있다. 세련되게 서로 신체적인 접촉을 갖는 것은 오히려 멋있고 활활한 경험이다. 포옹하고 키스하는 것은 아름답다. 첫키스는 레몬같이 상큼한 기억으로 남고, 서로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키스할 때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오직 두 사람의 심장 박동만이 세차게 들려 올 뿐, 그때는 두 사람의 존재가 전부다. 그 자체로 삶은 충만하고, 서로 사랑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된다. 하지만 어느덧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고, 사랑의 기쁨은 욕망과 금기 사이를 오가는 갈등을 가져온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망설이는 목소리로 내게 말했다. 함께 자고 싶다고. 서로 포옹하고 애무하면서 나는 내심 결국 그가 최후의 요구를 하게 되리라고 막연히 예감하고 있긴 했지만, 막상 그의 말을 듣고 나니 복잡한 심경에 싸였다. 그를 사랑하지만 무턱대고 그런 요구에 응하기엔 부끄럽기도 하고 한번도 경험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공포심도 있었다. 그리고 그런 행위를 한다고 해서 눈에 띄는 표시가 생기는 것이 아닌데도 사람들의 이목이 두려울 것 같기도 했다. 그러나 동시에 그와 하나가 되고 싶은 욕망이 있었다. 그의 절에 누워 머리카락을 쓰다듬고 향기를 맡고 호흡을 같이하며 안아 보고 싶었다. 나의 호기심과 두려움은 내 안에서 맹렬히 싸우고 있었다. 그가 다시 한 번 그런 제의를 했을 때 나는 좀더 생각해 보고 대답하겠노라고 망설였다. 그러나 그는 "너는 도망갈 여지를 남겨 두려는 거야, 왜 망설이는 거니? 난 널 끝까지 책임질 수 있어"라는 것이었다. 나는 더욱더 혼란스러워졌다. 결국 나는 며칠 후 그에게 "함께 하겠지만 나를 책임질 필요는 없어"라고 대답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신체적 접촉은 불쾌하고 더러운 것이라고 느껴지지 않는다. 오히려 나의 몸과 마음은 이제야 존재 의미를 획득하고 우리는 자신을 사랑스럽게 바라본다.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상의 행복이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즐거움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우리가 느끼는 감각적인 즐거움은 크고 깊다. 그러나 성관계를 갖는다는 것은 손잡고 키스하고 애무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겪는 절차로 다른 뭔가 결정적이고 최종적인 절차인 것 같아 선불리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다.

결혼으로 이어지지 않는 성관계란 모험일 수밖에 없다. 아마 사랑의 마력에 끌리지 않으면 혼전 성관계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강한 감정적 유대와 공감은 신체적인 접촉을 자연스럽게 즐거운 것으로 느끼게 해주고, 예무까지는 자신의 욕망에 충실했는데 성관계에서 거절하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다. 키스하는 것은 즐겁고 행복한데 성관계를 갖는 것은 두렵고 망설여진다. 동시에 보다 더 밀착된 느낌을 갖고 싶다는 욕망이 우리 안에 존재한다. 그래서 결국 성관계를 갖게 되고, 그리고 그 이후는? 사랑은 굴레가 되어 우리의 숨통을 조여 오지만 누구를 원망할 수도 되돌릴 수도 없는 상황에 빠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제 성관계를 가진 그 사람과는 무슨 일이 있어도 헤어지는 일이 생겨서는 안된다. 스스로 의식적으로 느끼지 않는다 하더라도 혼전 성경험의 굴레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여학생은 드물다. 모든 생활은 그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삶의 의미는 그와의 만남이 주는 기쁨과 고통 속에 자리한다. 공부도 뒷전이요, 친구들과의 약속도 그 사람에게서 갑작스러운 연락이 오면 뒤로 미루는 것이 예사이다. 그의 삶을 쫓아 끊임없이 내 모습을 바꾸고 내 생활의 리듬을 그를 중심으로 맞추어 가면서 나의 세계는 그를 둘러싼 조그마한 동심원으로 좁아진다. 어느 바다로 흘러갈지 모르던 드넓은 강줄기가 막혀 아주 작은 연못이 되어 그저 그 안에 고여 있는 생활이 시작되는 것이다.

‘우리 피임합시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때로는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성관계를 갖지만 성관계는 그 자체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여성에게 성관계란 성교에 국한된 행위가 아니라 임신, 출산과 분리시키기 어려운 과정이다. 피임을 준비하지 않고 성관계를 가지면 임신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여대생은 한 명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연애를 하는 여자가 상대방 남자에게 성에 대한 말을 하거나 피임에 대한 얘기를 꺼낸다면 “까진 여자”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 현실 속에서, 성관계를 요구하는 남자에게 “피임하자”고 말할 수 있는 여학생이 몇 명이나 될는지. 여기에 또 하나의 함정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알면서도 말할 수 없는 현실 때문에 혹은 전혀 피임에 대해 무지한 상태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준비 없는 성관계를 가진 결과 원치 않은 임신을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임신에 대한 공포는 매달 있는 생리일을 눈이 빠지게 기다리게 만들고, 생리가 있을 때까지는 (그래서 임신이 아님을 확인할 때까지) 아무 일도 손에 잡을 수 없을 정도의 불안과 공포 속에서 지내게 한다. 피임하자는 말도 순결을 의심받을까 봐 하지 못하는 미성숙한 사람이 임신과 출산과 분리될 수 없는 성관계를 갖는다는 것은 석유에 성냥불을 떨어뜨리는 것이나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남성에겐 성관계가 삽입-사정으로 끝나는 과정인지 모르지만, 여성에게는 위에서 언급 한대로 월경-성교-임신-출산의 연속적인 과정을 서로 분리시킬 수 없다. 몸에서 일어나는 일을 그대로 몸으로 책임져야 하는 주체는 여성이다. 그러므로 남성의 입장에서는 미처 피임의 중요성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중요한 문제인 피임을 요구하거나 말할 자신이 없다면, 그 관계는 서로의 솔직함보다는 상투적이고 형식적인 만남은 아니었을까? 가장 친밀한 두 사람이 서로의 몸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솔직히 말할 수 없다는 것은 억압된 성이 가져온 슬픈 현실이다.

자신의 몸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관계라면, 상호적이고 인격적인 관계라고 보기 어렵다. 처음에 ‘피임하자’는 말을 꺼내는 것이 힘들고 부끄럽겠지만, 자신이 혼전 성관계로 인해 갖는 불안감과 고민을 상대방에게 말해 주자.

사랑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성관계를 갖는다는 맹목적이고 낭만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보다는 서로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방법은 서로의 몸을 아껴 주고, 서로를 필요 없는 부담과 걱정에서 해방시켜 주는 일이 아닐는지. 남자가 먼저 말해 주면 더욱 좋겠지만 만약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내 몸에 대한 배려를 하지 못하고 있다면, ‘피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서로 터놓고 얘기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주체적인 성의식을 획득하자.

우리는 순결과 정력으로 양분되는 이중적인 성규범의 혼란과 모순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동시에 성이 상품화되고 대상화되는 왜곡된 성해방의 홍수 속에서 나름대로의 주체적인 성의식을 획득해 나가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사실상 많은 미혼 남녀가 혼전 성경험을 하고 있지만, ‘혼전 순결’이 공식적인 규범인 현실 속에서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 은폐되고 드러나지 않는 것뿐이다. 성에 대해 제대로 알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실정에서 ‘순결’과 ‘정력’이 강조되기 때문에 혼전 성경험은 굴레가 되어 버리고, 서로를 승화시키는 동의적인 성관계를 갖기보다는, 뺏고 빼앗기는 왜곡되고 일방적인 관계의 희생자가 된다. 이제 겨우 성적 존재로서의 ‘나’에 대해 처음 눈뜨기 시작하는 우리는 이렇게 어렵고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 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과제는 ‘성’에 대해 제대로 알아 가는 일이다. 우리를 둘러싼 왜곡된 성문화 속에 존재하는 다양한 각본들-성은 더럽다, 수치스럽다, 여자는 성적 존재일 뿐이다-을 무방비 상태로 수용해 버리지 않으려면 제대로 된 앎을 방패 삼아서 성의 참모습을 찾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고 생명력 넘치는 ‘성’을 나의 중요한 본성으로 회복했을 때, 앞으로 살아가면서 부딪칠 수많은 만남과 관계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나’를 세울 수 있을 것이다.



성적 욕구!

남성에겐 정력 제일,

여성에게엔 무지 제일

소위 사춘기라고 하는 청소년기는 외모의 변화와 생리적 변화가 두드러지면서 이성에 대한 관심도 아울러 높아지는 때다. 성적인 관심과 호기심 역시 보다 구체적인 것으로 변화한다. 반면에 이들의 관심과 호기심을 해소해 줄만큼 충분하고 계획적인 성교육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기껏해야 생물 시간에 배우는 단편적인 지식이나 단체 교육 형태의 일회적인 성교육이 고작이다.

훨씬 더 보수적인 세대인 부모에게 성교육을 기대하기는 더욱 어렵다. 한 26세 직장 남성의 경우 “자라면서 어머니와 성을 이야기해 본 적은 없다. 다만 아버지로부터 ‘괜히 여자 건드리지 마라’라는 말을 들은 적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결국 청소년기 남성들은 소설, 잡지, 만화, 비디오 물들을 보면서, 혹은 친구들과의 호기심 섞인 이야기를 통해 얻는 정보를 모아 나름대로 성에 대한 지식을 쌓아 갈 수밖에 없다.

포르노를 보는데 주로 사진이나 만화다. 한 친구가 학교에 가져오면 몇몇이 우르르 달려들어 보고, 순진한 애들을 안 보는 척하지만 결국 집에 가기 전쯤이면 반 전체 애들이 거의 다 둘러보게 된다.

이렇게 해서 새로 알게 된 성에 관한 정보나 지식은 친구들 간에 더욱 부풀려지고 과장되어 이야기 거리로 등장한다.

고등학교 때...자는 과정(성관계)을 다 이야기하고 상상도 못할 진한 이야기도 한다. “남자 열 명이 여자 한 명을 돌렸는데(윤간) 그 여학생이 남자 더 없느냐고 그러더라”는 등... 또 여자가 어떻게 소리를 지르고, 그런 얘기까지 한다.

그러다 보니 성에 관한 올바른 지식보다는 자극적이고 예외적인 경험, 심지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들이 마치 성의 실체인 양 밀어지기도 한다. 윤간을 당하는 여성이 그것을 즐기는 듯한 묘사를 마치 사실인 양 이야기하고 있는 앞의 사례도 그러한 예다.

남성에겐 성의 적극성

성에 대한 정보나 이야기에 자주 접하게 되면서, 또 사회적으로 남성에게 기대되는 성이 무엇인지를 어렵잖이나마 인식하게 되면서 남성에게는 ‘동정’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자연스러워진다. 물론 청소년기만 해도 성경험을 노골적으로 밝히는 것이 조금은 꺼려지거나 쑥스러울 수도 있지만, 그러한 경험이 수치스럽거나 크게 비난받을 만큼 잘못된 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오히려 청소년기 남성들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남성다움’사내라는 이미지는 성적인 적극성을 의미한다. 성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거나 경험이 있는 것, 강한 성적 능력 등은 자신이 ‘남성’임을 확인하게 해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형성된 남성의 성은 다른 어떤 측면보다 성관계 행위 자체만을 강조하는 특징을 갖는다. 포르노의 묘사나 잡지, 친구들과의 귀동냥에서 오가는 내용 속에는 남녀간의 사랑이나 서로에 대한 인격적 관심, 배려 등의 정서적 측면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성관계 행위 방식이나 테크닉, 쾌락의 정도만이 중요한 관심거리로 나타난다.

물론 청소년기의 성이 누구에게나 성적인 호기심이나 관심만으로 일관하는 것은 아니다. 성에 대한 호기심이 크면 클수록 성에 대한 죄의식 역시 마음 깊숙이 자리잡는다. 특히 성을 올바르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고 그저 은밀한 잡담이나 책 속에 숨어 있는 성만을 접하다 보니 더욱 컴컴하고 더러운 것이라는 느낌을 갖는다.

아무도 드러내 놓고 가르쳐 주지 않는 성, 그 은밀하고 자극적인 성에 대한 관심과 열망, 그리고 성에 대한 죄의식이라는 이중 감정은 청소년기 성의 갈등과 혼돈을 대표하는 가장 특징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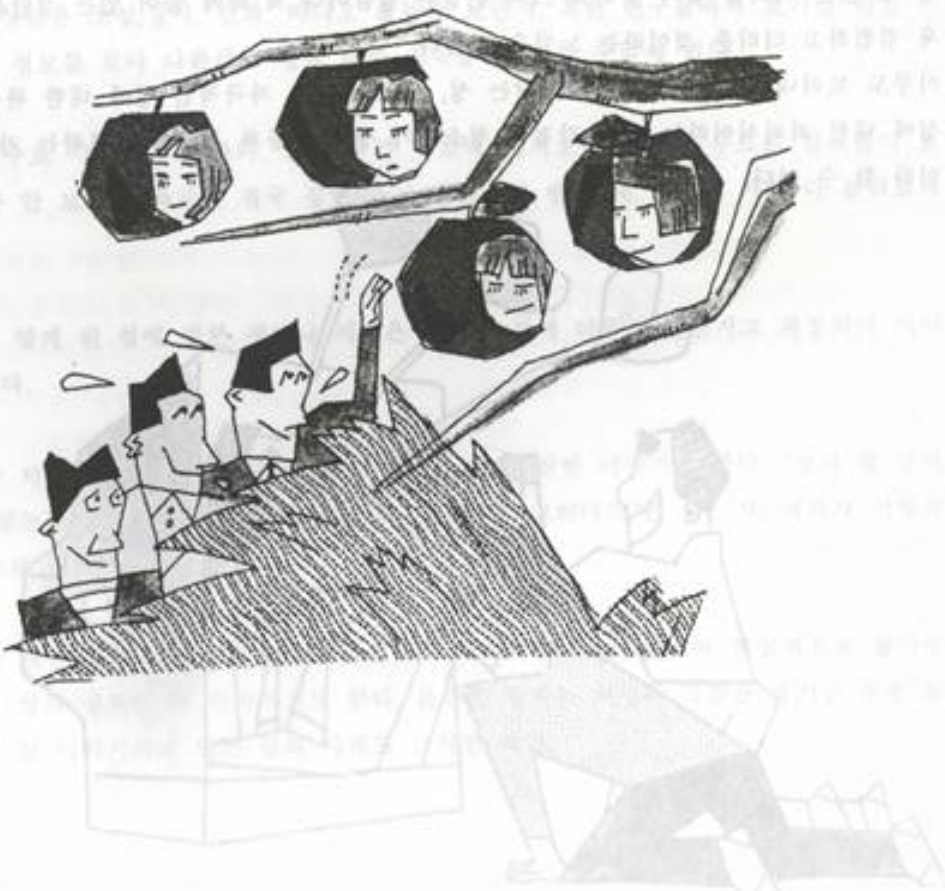


억눌리고 움츠러드는 여자의 성

사춘기 여성 역시 성에 대한 관심을 갖고, 성을 알고 싶어하기는 마찬가지다. 다만 남성에 비해 그러한 관심이 더 억눌리고 움츠러든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남자의 경우 그나마 중학교에 들어와서야 성교육을 받아 보게 되는 것에 비해 여자는 국민학교 5,6학년 때부터 이미 학교에서 성교육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는 그 나이가 되면 가슴이 생기고 월경을 하는 등 겉으로 드러나는 신체적인 변화에 대한 배려며 준비다. 그러나 여학생이 받는 성교육 내용 역시 충분하지 못하기는 마찬가지다.

성교육을 하되 그것은 '여자아이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 시간에 남자아이들은 따로 '공차기'를 한다. 아마도 사춘기 여자아이들의 부끄러움이나 예민함을 고려하고 있는 듯하지만, 바로 그 배려가 여학생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남자와 다른 웬지 부끄러운 존재라는 의식을 강하게 심어 주기도 한다. 즉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자연스럽게 성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여학생만 따로 은밀하게 이루어짐으로써 그 성교육을 받는 여학생은 자신의 몸의 변화가 남에게 특히 남성에게 알려지면 부끄러운 것이라는 암시를 강하게 받는다.



여성의 성교육은 순결교육

다른 한편 막연한 불안과 두려움으로 맞는 생리는 여성에게 불편하다는 인식과 이제 몸을 조심해야 한다는 교육으로 이어진다. 사실상 여성이 학교나 가정에서 받는 성교육은 순결교육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는다. 여자는 '유리그릇과 같아서 조금만 부주의해도 깨지고, 한번 깨지면 쓸모 없는 존재가 되고 만다.'는 가르침이 주요 내용이다.

순결에 대한 의식이 강하면 강할수록 여성에게 성은 피해 의식의 대상으로 느껴진다. '자전거를 타면 처녀막이 파열된다는데 운동을 해도 되는 걸까'라는 막연한 불안은 물론 '잘못해서 못된 남자를 만나 끔찍한 일을 당하면 어쩌나' 하는 피해 의식 때문에 전전긍긍한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많은 여성들은 성적인 피해 경험을 갖기도 한다.

7살 때인가 집에 가는 데 한 고등학생이 나를 갑자기 멈추게 했다. 산으로 데려가서 눈을 감으며 나를 놔뒀다. 내 치마 속에 손을 넣고...말로 표현하기도 싫은 기억이다. 난 겁도 나고 싫어서 "갈래요" 했던 것 같다. 그게 전부지만 지금 생각하면 너무 불쾌하고 억울하다.

'낭만적인 사랑'으로 둘러지는 성적 관심

순결에 대한 강조는 또한 여성으로 하여금 성에 대해서 모르면 모를수록 좋다고 생각하게 한다. 실제로 '천사 같은 여성'이라는 찬사는 어린아이처럼 세상 일은 전혀 모르는 채 맑은 눈을 가진 '착하고 순결한' 여성을 연상케 한다. 그래서 '착한 여성'은 성에 대해 알고 싶어도 안 되고 알아서도 안 된다.

그러나 여학생들 역시 우연히 또는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성에 대한 정보에 접하기도 한다. 소설이나 잡지를 보기도 하고 친구들과 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다.

우리 친구들 중에 성에 관해 많이 알고 있는 친구가 있었다. 그 친구는 위로 언니가 있어 잡지도 많이 읽고 이야기도 들었다며 우리들을 모아 놓고 열심히 설명해 주기도 했다. 그 때 남자의 성기가 여자 몸에 들어와야 아기가 생긴다는 이야기도 했던 것 같다. 그 예의 이야기 중에 나도 아는 게 있었지만 처음 듣는 양했다. 난 내가 그런 걸 알고 있다는 게 웬지 꺼림칙했다.

이러한 경험은 남성들과 매우 비슷하지만 남성들이 자신의 성지식을 과장해서 떠벌이는 데 반해 청소년기 여성들은 자신이 성을 안다는 것 자체를 부끄러워하거나 죄의식에 빠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는 여자는 순결해야 한다, 혹은 여자는 성에 대해 알면 안된다는 사회적 기대를 내면화한 결과다.

그래서인지 여성들은 남성처럼 성관계나 성기 등에 직접적인 관심을 갖기보다 이성과의 '낭만적인 사랑'으로 성적인 관심을 돌린다.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낭만적인 사랑'에 대한 꿈은 소위 '하이틴 로맨스'류의 연애 소설을 통해 유포되기도 하고 또 소설을 읽음으로써 대리 만

죽을 얻고도 한다.

남성이 주로 보는 잡지류나 포르노 물이 구체적인 행위나 성관계에 관심을 두는 것과 비교해, 로맨스 소설은 남성과 여성이 맺어 가는 데이트 상황이나 인간관계, 사랑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그러나 로맨스 소설에서도 나타나듯이 여성들이 기대하고 꿈꾸는 남녀간의 관계는 자율적인 두 인격체간의 만남이 아니라 모든 조건을 갖춘 남성과 미모를 갖춘 여성간의 불평등한 관계다. 그 꿈같은 사랑이 현실로 나타나길 기대하는 여성은 모든 조건을 갖춘 남성을 만나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순결을 지켜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신의 성을 억제하고 스스로 움츠러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 사춘기 여성들은 진정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는 자신이 어떤 성적 욕구를 갖고 있는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어른으로 성장해 가는 것이다.

여성과 남성의 엇물리는 성

사춘기를 벗어나 보다 폭넓게 세상을 배우고 자연스럽게 남녀 교제를 하기도 하면서 사춘기 시절 형성된 성에 대한 인식에 조금씩 변화가 생긴다. 사춘기 시절에 가졌던 성에 대한 죄의식도 어느 정도 없어지고, 또 성에 대한 극단적인 신비감이나 호기심도 없어진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남성으로서 혹은 여성으로서 배운 성에 대한 태도나 행동 규범이 성인이 되면서 실제의 경험을 통해 더욱 강화된다. 특히 남성의 경우 서클이나 군대, 직장 등 특유의 남성 조직의 일원이 되면서 청소년기에 주로 이론으로만 알았던 성을 직접 확인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여성 역시 이성 교제를 하면서 상대 남성이 자신에게 갖는 기대가 무엇인지 의식하기도 하고, 성에 관한 직접·간접 경험에 부딪치기도 하지만 남성에 비하면 여전히 소극적인 경험에 머무른다.

사실상 남성과 여성이 갖고 있는 성에 대한 인식이나 태도는 '서로 다른 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남성에게 성은 자신의 적극성과 남성다움을 실현할 수 있는 모험의 장이자 정복의 경험이다. 성에 대한 여성의 의식도 많이 변화했다고는 하나 여전히 '성'하면 혼전 순결이 떠오르고 잘못하면 손해볼 수도 있다는 피해 의식이 여성을 억누른다.

이러한 문화에서 성장한 어느 한 남성과 한 여성이 만나 교제를 시작한다고 생각해 보자. 과연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인지.

그와 사건 지는 1년 반쯤 되었다. 남들은 우리를 보고 환상의 커플이라고들 한다. 그러나 점점 가까워지면서 우리는 늘 한 가지 문제로 다투게 되었다. 난 손잡고 가볍게 안는 것까지는 괜찮지만 그 이상은 안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점점 더 깊은 관계를 요구해 왔다. 한번은 그가 술을 마시고 거의 애처롭게 하소연을 했다. "난 너와 빨리 결혼하고 싶어. 너 나한테 언제 올래. 나 지금은 잘 참고 있지만 못 참을 지도 몰라. 너는 날 못 믿는 거지?" 그가 그런 말을 한 데에는 그의 주위환경도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았다. 그의 친구들 사이에서 그와 나는 이미 그런 관계까지

도 이루어져서 나는 이미 그에게 도장 찍혔다는 말을 한다고 했다. 그는 아무에게도 자신이 아직 동정을 갖고 있음을 얘기하지 않고 있는데 만약 그런 말을 하면 자신은 바보 취급을 당할 거라고도 했다. 난 순결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사랑하는 그의 요구를 들어주고 싶기도 하다. 내가 비겁한 걸까? 난 요즈음 위기를 느낀다.

요즘의 젊은 세대들은 '사랑하는 사이라면 혼전 성관계도 괜찮다'는 정도의 변화된 성의식을 갖기도 한다. 그러나 아무리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사고 방식을 가진 젊은이라도 기존의 사회적인 통념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는 어렵다. "내가 원해서 성관계를 가졌다"고 당당하게 말할 정도의 적극적인 여성이면서도 혼전 순결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다음의 사례가 그러한 상황을 잘 보여준다.

난 그와 성관계를 맺으면서도 죄책감에 시달렸다. 내가 자라며 배운 순결 의식이 은연중에 내 머리 속에서 나를 괴롭혔다. 텔레비전이나 잡지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면 난 그에게 굉장히 신경질을 부리곤 했고 예민하게 반응했다. 우리는 우리의 행동이 정말 옳지 않은가에 대해 이야기했다. 결론은 우리의 행동이 반드시 옳은 것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옳지 않은 행동은 아니라는 것이었다. 우리의 관계가 이대로 지속된다면 5~6년 후에는 결혼할 계획이다.

이 두 사람은 열심히 자신의 생활을 지켜 가면서 미래를 계획하고 평등한 관계를 모색하는 젊은이들이다. 그런데 이 사랑하는 남녀를 괴롭히는 갈등의 요인은 무엇인가. 두 사람이 진정 원하고 선택한 관계임에도 그들을 "우리의 행동이 반드시 옳은 것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옳지 않은 행동은 아니다"라는 애매한 결론으로 자위하도록 만든 것은 바로 기존의 성규범을 깨뜨렸다는 죄의식이다.

우리 사회가 남성과 여성에게 기대하는 성규범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성충동을 억제하기 어려운 남성은 매춘에게 가서 자신의 욕구를 해소해도 별 상관이 없지만, 여성은 무슨 일이 있어도 순결을 지켜야 한다. 다음의 사례가 바로 전형적인 경우이다.

술을 마시던 그는 몹시 피로운 표정을 지으며 말을 했다. "사실은 어제 그런 데(매춘)에 갔었어, 친구들과 어울리다 보니 할 수 없었지만, 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너의 순결을 지켜 주고 싶어서였어."

우리는 이 남자 친구에게 어떤 평가를 내릴 수 있을까. 사랑하는 애인의 순결을 지켜 주려 노력하는 모습을 칭찬해 주어야 할까. 아니면 자제력이 없다고 비난해야 할까. 혹은 케변론자라고 가볍게 경멸하고 말 것인가.

현재 우리 사회에서 남성과 여성의 성은 '무엇이든지 풀을 수 있는 창'과 '무엇이든지 막을 수 있

는 방패'를 연상시킨다. 남성과 여성은 조화롭게 삶을 살아가야 할 짝이면서도, 실제로는 서로 다른 곳을 쳐다보며 엇물려 있다. 여성과 남성은 서로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자기 자신의 진정한 욕구가 무엇인지도 잘 알지 못한다.

어떻게 이 창과 방패의 모순을 깨뜨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자기 자신을 보다 잘 이해하면서 남성과 여성이 함께 편안하고 행복하며 조화로운 만남을 이룰 수 있을까.

우선 무엇보다 성에 대한 인식 자체의 변화가 필요하다. 즉 성이란 단지 성행위 자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한 인간의 이성과 감정, 정신과 육체의 통합을 기초로 하는 하나의 인간관계라는 의식 전환이 요구된다. 또한 성규범은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서로 다른 규범을 적용하고 인간의 정신과 행동을 통제하기 위해서가 아닌, 보다 성숙한 인간관계를 위해 필요한 '예의'로서 존재해야 한다.

물론 이러한 성문화의 변화를 위해서는 평등한 남녀관계를 위한 개인적·사회구조적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현재로서 가장 현실적이고 가능한 방법은 새로운 성의 사회화를 통해 성을 다시 가르치고 배우는 일일 것이다. 성을 억압하고 감추기보다 어린 시절부터 각 연령에 적합한 성지식을 가르치고, 자신과 타인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는 인간관계 훈련의 연장으로서 성의 사회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새로운 성의 사회화를 통해 남성과 여성은 지나치게 과장되거나 지나치게 억눌린 성이 아니라 보다 자연스럽고 편안하며, 따뜻한 성을 배워 나갈 수 있다. 또 거기에는 이전의 남성다움, 여성다움의 편협한 틀에서 벗어나, 자율적인 한 인간으로서 스스로 삶의 방식을 선택하고 책임질 수 있는 새로운 성역할도 포함되어야 한다.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보다 인간적인 성이 무엇인지 모색하고 변화를 추구 해감으로써, 여성과 남성은 서로 엇물리는 짝이 아니라 서로 어울리는 짝으로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매춘이 사라지면 성폭력이 늘어난다?

끼가 있어서 몸은 판다?

신촌에서 호스텔로 일하고 있는 Z 양은 기가 차다는 듯이 말한다. 5년 동안 홍제동 인삼 찻집에서부터 영동, 의정부 등에서 매춘을 했던 그녀는 그런 말에 반기를 든다.

“도대체 지들이 뭘 안다고 그딴 소릴 지껄여? 터진 입이면 아무렇게나 말해도 되는 거야?”

분개하는 그녀가 처음에 몸사롱에 갔을 때는 나이든 아저씨들이 추근거리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다고 한다.

“당시에 나는 워낙 어리기도 했지만 나이 든 아저씨들이 손녀 같은 나를 주물러 대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내 또래 남자 아이들하고 노는 것 정도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또 배운 게 없어도 그냥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너무 싫어서 손님에게 재떨이를 집어던지기까지 했어요.”

이런 모욕감은 디스코 절로 일하고 있는 그녀의 친구도 마찬가지였다.

또 2차를 나갈 때도 마찬가지다.

Z 양은 처음에 손님과 2차를 가게 되었을 때 너무 무서워서 ‘나는 못 가겠다’고 한참 버티었다. 그래도 테이블에 있으면 다른 아가씨들도 함께 있으니까 안심이 되었지만 손님과 단둘이 여관으로 가서 섹스를 한다는 것이 그녀를 두렵게 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2차를 가야 하는 것이 그들 일이기에 그녀를 두려움을 떨치지 못하고 여관으로 향하곤 한다고 한다. 모든 것에 적응하기 마련이듯 그녀 또한 반복되는 테이블 접대와 2차를 다니다 보니 두려움이 많이 가시게 되었다.

보통 사람들은 매춘 여성들은 ‘끼가 있어서’ 매춘을 한다고 하나다. 그래서 돈을 주고 여자를 사는 남자는 별로 죄가 없다. 남자들은 어디까지나 ‘끼’ 있는 여자의 꼬임에 빠져서 잠깐 정신을 잃은 것으로 치부됩니다. 그러나 너무나 끼가 많은(?) 이 여자들도 정작 처음 매춘을 시작할 때에는 상당히 겁먹었다. 끼가 없는 순진한(?) 남자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여자를 사는데 정작 끼가 있는 여자들은 두려워한다.

왜 그럴까?

왜냐하면 이들은 자신의 일에 상당히 겁먹고 그 일을 모욕적으로 느끼기 때문이다. 매춘을 단지 ‘남자와 노는 것’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큰 착오였다는 것은 한순간에 깨닫는다. 처음엔 ‘그까짓 것 내 친구도 하는데 뭐!’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착각이었다. 매춘이 남자와의 교제가 아니라 돈을 위해서 감수해야 하는 결코 쉽지 않은 일임을 곧 깨닫는다. 매춘은 돈이라는 권력을 쥐고 있는 남자들의 별의별 제의를 다 받아 들여야 하는 과정임을 습득한다.

그렇지만 매춘 여성에 대한 통념은 “끼 있는 여자, 정조 관념이 희박한 여자들만이 매춘을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통념에는 기본적으로 ‘본래 여자는 성욕이 없다’라는 관념이 들어 있는 것이다. 하지만 매춘 여성만이 성욕을, 그것도 강하게 타고났다는 것이다.

신화를 창조하는 남성들의 술수는 언제나 대단하고 멋있기 마련이다.

그런데 여자는 본래 성욕이 없나?

그렇다면 미장원에서 아주머니들끼리 주고받는 음담패설은 뭔가?

매춘 여성을 예외적인 분류로 낙인찍는 통념은 한마디로 잘못된 것이었다. 이는 남녀가 같이 저지른 (정확히 말해서 남성이 벌려 놓은 일을 여자들의 함께 한 일이지만) 매춘 행위에서 오직 매춘 여성만을 비난하는 현실을 합리화하였다. 거짓이 합리화되는 데 통념이 얼마나 커다란 작용을 했는가? 매춘에서도 그렇다.

“너희들은 끼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몸을 판다. 그래서 우리 남자도 어쩔 수 그래서 우리 남자도 어쩔 수 없이 너희를 산다. 끼 있는 너희가 유혹했기 때문.”

그러나 잘못된 통념은 매춘 여성들의 이야기 속에서 금방 탄로 난다. 이들은 남성들의 집적거림을 ‘정그럽거나 두렵다’고 느낀다. 끼가 있다면 즐거울 텐데, 음탕한 여자라면 남성들의 음탕함에 같이 동참할 수 있을 텐데, 이들은 그렇지 못하다. 이들에게 매춘은 배부른 남성들의 유희가 아니다. 구차한 돈벌이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매춘 여성을 ‘성욕의 덩어리’로 보거나 ‘쉽게 매춘을 한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이런 통념은 돈이면 여자도 살 수 있다는 파렴치한 남성들의 행위를 합리화한다. 또 매춘 여성은 ‘사회의 필요악으로서 존재해야 한다는 것을 역설한다. 즉 끼 있는 여자는 남성들의 성적인 배설구가 되어도 상관없다는 생각을 강화한다. 이런 사회 속에서 사람들은 “순결한 여자를 보호하려면 매춘은 존재해야 해!”라고 뻔뻔스럽게 말한다. 참 그럴듯한 각본이다. 이런 든든한 백을 믿고 술한 남성들은 그 죄를 면죄 받았다. 실제 남성들은 범망에 걸리지 않는다. 오직 잘못된 매춘 여성들의 몫이다.

그러나 첫 영업을 할 때 매춘 여성들이 느끼는 당혹감, 모욕감, 두려움 등은 매춘 여성을 ‘타고난 일탈자’로 몰아세우는 통념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낸다.

“예쁜 여자가 잘 팔린다.”

외모가 빼어난 여자일수록 남자한테 인기가 좋고 주가가 높은 건 사실이다. 나는 남성들이 왜 그렇게 예쁜 여자를 밝히는지 이해가 안 가지만, 누구든지 예쁜 여자를 좋아한다. 그래서 요즘에는 여자에게 ‘예쁘다’는 말만큼 더 큰 칭찬은 없는 것처럼 되어 버렸다. 남성들이 누구나 예쁜 여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여자들은 갈수록 미인이 되는 것 같다. 그 잘난 취향에 여자들도 맞장구를 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예쁜 여자를 판매하는 저속한 남성들의 취향은 곧 매매 춘 시장에서도 그대로 재현된다. 매매 춘 시장에서 외모가 빼어난 여자는 주가가 높고 말 그대로 잘 팔린다. 이들의 성과 외모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자원이다. 그도 그럴 것이 자신의 몸 하나 가지고 먹고사는 이들에게 외모는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다. 그래서 이들은 상품으로서 높은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 항상 외모* 신경을 쓴다.

영동에서 일하는 N 양은 ‘이런 데서 일을 하려면 일단 얼굴과 몸매가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왜냐하면 얼굴이 예쁜 것을 손님이 원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들은 자연 얼굴에 신경을 쓰고 그러다 보니 더욱더 예쁘고 세련되어진다. 이렇게 보면, ‘예쁜 여자들은 다 술집에 있다’는 남성들의 이야기는 농담이 아닌 듯하다. 밥 먹고 줄곧 외모에만 신경을 쓰면 안 예뻐질 여자가 누가 있겠는가.

그러므로 이들에게 ‘외모 가꾸기’는 일종의 생존 전략이다. 즉 고객의 눈에 띄는 상품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뛰어난 외모를 지녀야 한다. 한마디로 이들의 ‘노동조건’은 ‘젊음’과 ‘미모’다. 이들에게 밥줄인 남자를 잡기 위해서 외모를 탤런트 뺨칠 정도로 예쁘고 눈이 부실 정도다. 영동에서 일하는 S 양은 그곳 아가씨들의 미모에 대해서 이렇게 감탄한다.

“영동에 있는 아가씨들은 탤런트 뺨치게 예쁘게 생겼어요. 다들 키도 크고 늘씬해요. 또 너무 화려해서 눈이 부실 정도예요. 까무잡잡하게 잘 태운 피부에 야광빛 연두색 옷을 입고 다녀도 촌스럽지 않고 세련되었어요. 눈에 띄는 미인들이 많지요. 내가 일하던 곳에는 정말로 잘 태운 피부에 야광빛 연두색 옷을 입고 다녀도 촌스럽지 않고 세련되었어요. 눈에 띄는 미인들이 많지요. 내가 일하던 곳에는 정말로 탤런트 강문영보다 더 예쁜 언니가 있었어요. 그 언니는 우리 업소에서 제일 인기가 많았지요. 역시 예쁜 아가씨들이 접대하고 2차를 나가도 팀이 제일 많았지요. 역시 예쁜 아가씨들이 마담한테도 인기가 좋고 스폰서도 잘 잡아서 도도하기까지 해요.” 외모가 빼어나도록 손님과 스폰서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들에게 외모는 생계의 문제로서 중요한 작용을 한다. 그러므로 이들은 돈을 버는 족족이 화장품을 사고 머리를 손질하고 옷을 사는 등 외모를 꾸미는데 날려 버린다. 이들은 적금 같은 것은 생각하고 못하고 돈을 버는 족족이 치장하는 데 다 써 버린다. 일단 외모가 뛰어나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보면 화려하고 사치스럽기만 한 이들의 외모와 돈 씹씹이는 알고 보면 돈을 벌기 위한 기초 단계였을 뿐이다. 물론 낭비벽은 이러한 생활을 통해서 길들여진 습관이겠지만 처음의 시작은 바로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에 불과하다/

한편 이들은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 동료들과 치열한 경쟁 전을 벌이기도 한다. 디스코걸 S 양은 이렇게 말한다.

“업소 아가씨들은 앞에서는 언니 동생 해도 뒤돌아 서면 서로 욕해요. 테이블 손님을 빼앗으려고 서로 싸우기도 하고. 그래서 새로운 아이가 오면 긴장하게 돼요. 또 손님 접대비를 누가 많이 받느냐에 따라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요. 외모 경쟁도 얼마나 하는데요. 누가 어떤 옷을 입었는지, 어떤 화장을 했는지 다 경쟁해요.....업소에서는 저만 돈 벌려고 손님에게 지나치게 알랑거리는 아가씨는 싫어해요. 그러면 손님들이 다른 아가씨들한테도 그걸 요구하고, 우리만 피곤해지거든요.

그런 아가씨는 따돌림당해요.”

손님은 왕이다. 손님은 이들의 생계를 북돋아주는 돈줄이기에 손님을 잡기 위한 경쟁은 무
쟁적이다. 외모를 꾸미기 위해서 치열한 노력을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갖은 아양을 떨면서 손님을
낙으려 한다.

이처럼 매춘 여성들은 남자들이 바라는 최대의 여성다움을 발휘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매춘
여성들은 남자들이 요구하는 여성다움의 전형적인 인물이다. 물론 순결하지 않다는 점을 접어 두
면 말이다. 그리고 그런 대가로 이들은 적지 않은 돈을 받는다.

돈 있는 숙된 남자들은 얼마나 좋겠는가. 때어난 미인들이 아양을 떨면서 달라붙는 그곳에서 황
제처럼 군림하니 말이다.

그러므로 매춘 여성을 '성욕의 덩어리'로 보거나 '쉽게 매춘을 한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이런 통
념은 돈이면 여자도 살 수 있다는 과열치한 남자들의 행위를 합리화한다. 또 매춘 여성은 '사회의
필요악으로서 존재해야 한다'는 것을 역설한다. 즉 끼 있는 여자는 남자들의 성적인 배설구가 되어
도 상관없다는 생각을 강화한다. 이런 사회 속에서 사람들은 "순결한 여자를 보호하려면 매춘은
존재해야 해!"라고 뻔뻔스럽게 말한다. 참 그럴듯한 각본이다. 이런 든든한 백을 믿고 술한 남자들
은 그 죄를 면죄 받았다. 실제 남자들은 법망에 걸리지 않는다. 오직 잘못된 매춘 여성들의 몫이
다.

과연 매춘은 사회악으로 치부되면 매춘이 사라지면 성폭력은 그것이 어떤 형태로든 증가할 수밖
에 없는가? 우리는 매춘 여성과 남성들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우리 사회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
봐야 하지 않을까 한다.

우리 나라 사회 속에서의 매춘...

남성에게는 성에 대한 통제와 인내를 가르치기보다는 성의 방종을 허락하면서 여성에게는 성에
대한 무지와 성적 욕망을 금기시 했던 사회를 생각해야 하지 않은가? 그렇기에 순결한 여성의
보호를 위해, 하나의 사회악으로서의 매춘이 존재하여야만 한다는 것이 그럴싸한 구실로 들리는
것이 아닌지?

성은 호르몬의 지배를 받아 뇌에서 쾌락을 느끼는 것이다.

남성과 여성이 성에 대해 정확히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성에 대한 자제를 이성적인 훈련을 통해
성적 욕망을 좀더 건설적인 방향으로 승화시키는 것이 종용되는 사회라면 매춘에 대한 사회악이
라는 그 그럴싸한 통념은 더이상 설득력이 없을 것이다.

성폭력에 거짓된 통념들

우리 사회는 성폭력에 대해 실제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잘못된 생각들을 마치 과학적 근거라도
있는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통념들은 너무나 큰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성폭력에
관한 통념들, 어디까지 사실인가 알아보고자 한다.

잘못된 생각1: 강간만이 성폭력이다?

우리는 흔히 심한 성추행이나 강간만을 성폭력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정확히 말해
서 상대방(여성)의 의사에 반하면서 상대방에게 불쾌감이나 불안을 주는 모든 성적 행동은 성폭
력이다. 얼마 전 실시한 연세 신입생 성의식 조사에서도 보았듯이 대부분의 학우들이 성폭행의 기
준을 넓게 보는 것이 정착되어 가고 있긴 하지만 아직도 강간만을 성폭력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전반적인 사회적 통념이다.

직장 내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짙은 농담, 지하철 같은 공공 장소에서의 추근거림, 성기 노출,
음란 전화, 음란 통신, 아내 구타, 인신 매매, 강요된 매춘 포르노 등도 모두 성폭력이다. 이렇게
보면 성폭력은 우리의 일상 문화의 한 부분으로 스며들고 있고 모든 여성과 남성들을 크고 작은
성폭력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잘못된 생각2: 강간은 폭력이 아니라 조금 난폭한 성관계다?

바로 이것이 우리 나라의 성폭력의 은닉을 조장하는 가장 커다란 이유다. 여성들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깊은 자책감이나 수치감, 절망감에 빠진다. 그러나 강간은 성관계가 아니라 단지 남성의
성기가 공작 무기가 되어 여성의 성을 침해한 폭력 행위이다. 따라서 여성은 성관계를 가진 것이
아니라 폭력을 당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잘못된 생각3: 성폭력은 남성의 성충동 때문에 일어나는 우발 적인 범죄다.

'남성의 성욕은 본능적이며 충동적이고 억제할 수 없는 정도로 강하다'라는 잘못된 생각에서 출발
되어 진 것이다. 남성의 성은 남성 중심적인 성문화에서 그렇게 조장되어 진 것이지 과학적인 근
거를 지니고 있지 못하다. 또한 성폭력 중에서 70% 이상이 우발적 범죄보다는 계획된 범죄로 나
타난다. 가해자는 성폭력의 시간과 장소, 대상까지 치밀하게 계획하고 실행에 옮긴다. 또한 성폭력
에 동기는 자신에 대한 불만이나 분노, 소외감의 표출일 때가 많고 자신의 남성다움의 과시나 능
력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성폭행을 한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이 너무나 쉽게 이러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은 남성은 성을 억제할 필요가 없을 뿐 아니
라 여성은 남성의 성적 요구를 받아 드리는 도구로만 보는 남성 중심적 성문화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잘못된 생각 4: 여성들의 심한 노출을 성폭력의 주범이다.

작년 여름 배꼽티가 소위 X세대들에게 유행할 때 몇몇 보수 언론에서는 여성들의 이런 한 과대(?) 노출은 성폭력을 부추키는 아주 위험한 것으로 떠들어댔다. 그러나 성폭력은 젊은 여성들만 피해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70세가 넘는 할머니부터 5살도 채 되지 않은 아이까지 광범위하게 나타나거나 심지어 어린 남자아이들에게까지 일어난다. 여성들의 옷차림에 성폭력의 책임을 묻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위에서 보았듯이 성폭력의 동기는 자신에 대한 불만이나 분노, 소외감의 표출이지 여성들의 성을 탐하는 행위가 아니다. 또한 여성을 한 인간으로 보지 않고 남성의 성적 욕망을 채워 주는 대상으로 보는 사회 풍조가 근본적으로 문제시되어야만 한다.

잘못된 생각5: 강간은 모르는 사람에게 당하는 일이다.

실제로 강간의 피해는 아는 사람에-약 70%이상-의한 경우가 많다. 그리고 93년 진관이 보온이 사건에서 보았듯이 근친간의 강간도 꽤 많이-약 30%-행해지고 있다. 이러한 통념은 남성의 성충동에 의해 일어나는 우발적인 범죄로 보는 인식이 전제된 것이다.

잘못된 생각 6: 강간은 나랑 상관이 없는 이야기다.

우리는 강간을 접하게 될 때는 가해자보다는 피해자, 더 정확히 말하자면 강간이 행해진 상황을 더 중시하고, 그 상황에 따라 강간을 화간을 물아가며 가해자인 남성에게 면죄부를 던져 주는 일이 많다. 하지만 그 동안 2%만의 성폭력이 우리에게 알려져 왔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지도 모른다. 그러나 성폭력은 특정 연령, 계층, 혹은 장소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이, 종교, 직업, 교육 정도, 용모에 관계없이 모든 여성에게 일어나고 있다.

잘못된 생각 7: 강간범은 정신 이상자이다.

많은 사람들이 강간범은 저소득층의 성격 파탄 자이나 정신 이상자 일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강간범들은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지 못할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대부분의 가해자들은 일반인과 다름이 없는 사람들이다. 직업이나 계층적인 특수성도 나타나지 않고 도리어 성실한 직업인으로 혹은 착실한 사람으로 평가받는 사람들도 있다. 이들은 자신의 소외감, 열등의식, 박탈감, 분노 등을 표출할 대상으로 성적인 공격에 무기력한 여성들과 어린이를 택했을 뿐이다.

잘못된 생각 8: 여자가 끝까지 저항하면 강간은 불가능하다?

흔히 '흔들리는 바늘에 실을 꿰 수 있느냐?'며 끝까지 저항하면 강간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화간으로 물고 가거나-작년에 실시한 성의식 조사에서 어떤 학우는 강간 미수는 성폭행이지만 강간은 성폭행이 아니다. 강간이라 있을 수 없다-라고 답하기도 했다.-피해 여성의 정조관념을 의심하기도 한다. 그러나 강간범은 많은 경우 신체적인 위협을 가하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통적인 순결 제일, 순결을 지켜 내지 못했다면 그런 척이라도 해야 하는 여성들은 상황에 맞게 대처하는 저항 능력을 키우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경유 흔들리는 바늘이 아니라 꼭 잡

무엇을 성폭력이라 말할 수 있을까?

우리 나라 성폭행은 세계 3위를 차지하고 있다. 신고율만 조금만 높았어도 세계 1위를 무난히 차지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성 단체들로부터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일년에 7000여건이 신고되는 성폭력 범죄, 우리 나라 성폭력 신고율이 2%라는 통계를 감안 해 본다면 일년 동안 벌어지고 있는 성폭력은 25000여건에 이르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폭력은 나와 별개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성폭력하면 낯선 사람에게 캄캄한 밤에 순간적으로 강간을 당하는 일이라는 잘못된 통념을 배워왔기 때문이라.

그러나 얼마 전, 연세인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성 의식 조사에서 (표본이 얼마 되지 않아서 정확성을 떨어지지만) 대부분의 학우들에게 성폭력은 강간이나 강간 미수 등의 강도 높은 성폭력 뿐만 아니라 성적 희롱과 성기 노출, 음란 전화나 공공 장소에서의 추행,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농담이나 노래, 그림 벽보까지 꽤 넓은 의미로써 받아 드리고 있었다.

이것은 물론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다행스러운 일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위에 의식 조사는 단지 의식 조사일 뿐이다.

신입생 환영회가 연신 벌어지고 있는 요즘, 술에 지나치게 취한 남자 선배가 여자 후배의 어깨를 두른다거나, 남자 선배가 남자 후배들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야한 이야기들을 무슨 자랑이나 되는 듯이 들려주고 있는 모습들은 찾아야만 보이는 그리 어려운 광경은 아니다.

그러한 광경이 싫어 무어라 싫다는 말 한마디 쏘아 부치려고 하면 분위기가 썰렁해 질 것 같고, 선배가 무안해 할 것 같기도 하지만 웬지 그런 말을 하기엔 용기가 없을지도 모른다.

어깨에 둘러진 선배의 손이 싫으면 화장실 간다는 핑계로 그 자리를 피하고 나면 그만이고, 선배의 음담패설이 위거우면 집에 간다고 나와 버리면 그만이다. 그리고 행하는 사람도 그 피해를 받는 사람도 그들의 성폭력 가해자요 피해자임을 아무도 인식하고 있지 않다.

'아니 반갑다는 어깨에 손 한번 올리는 것이 성폭행이라고?'

'그냥 반갑다는 표시 아니 어요? 그게 성폭행이라고요?'

이쯤 말이 되고 나면 성에 대한 반감을 갖게 될 지도 모르는 일이다.

공동체를 강조하는 대학에서 가장 개인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성을 이야기하자면 웬지 맞지 않는 웃을 입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친근감의 표시와 성적인 폭행

그 종이 한 장의 차이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대학 내의 대동 문화 안에서 가벼운 스킨쉽 정도는 친근함의 표시이다. 또한 스킨쉽의 대상을 성적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별로 의심할(?) 필요가 없다. 그렇기에 그런 상황을 누구도 '성폭행'이라고 여기지 않는다.

그러나 대부분의 여학우들은 그런 것은 이성적으로 알고 있으면서 거부스러움을 느낀다는 것에 문제는 발생한다. 그들이 거부스럽게 느끼기 시작하는 것은 이미 대동의 문화 안에서의 친근함의 표시가 아니라 개인적인 성의 문제임을 인식해야 한다.

대동의 문화라는 커다란 명제 안에 이런 가벼운 성폭행을 그냥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자신의 성폭행의 가해자이고 또한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는 것을 진정으로 이해 할 때 성에 대한 올바른 시각이 시작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혀 있는 바늘인 것이다.

잘못된 생각 9: 성폭행을 당하기를 은밀히 바라는 여성들도 있다.

여성은 강간을 당한다는 공포심이 자극되어 보다 흥분하고 성적 쾌감을 확장된다는 사람들도 있고 여성은 마조히즘이 발달되어 성폭행을 당하기를 바라는 여성들도 있다는 통념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성폭력에 관한 새빨간 거짓말 중에 하나이다.

인간의 성감을 관장하고 있는 것은 뇌이다. 여성은 자궁에서 느낀다고 하고 음경에서 느낀다고 하지만 그것은 모두 정염(精念)일 뿐 생리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다. 여성이나 남성이나 모두 성감은 최종적으로 뇌에서 느끼게 되는 것이다. 남성과 여성이 다른 것은 남자의 경우 마음에도 없고 싫다고 해도 사정을 함으로써 어느 정도 쾌감을 지닐 수 있으나 사정을 하지 않은 여성은 느끼는 요소가 없는 것이다. 성폭행의 경우 극도의 수치감과 공포 속에서 여성은 자극을 거부함으로써 쾌락이 생기지 않는다.



—세계 성폭력 대회—

여성신문 만평(반쪽이)에서

성, 사랑에서 주인 되기

--통념과 규범의 비판--

1. 여자와 남자는 다르다?

성, 사랑을 생각하고, 말하고, 체험하는 데에서 여성과 남성 사이에는 두드러진 차이가 나타난다. 많은 사람들이 남녀는 태어날 때부터 차이가 나고 그것은 시체의 차이 때문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남녀 차이를 지적하면 곧 이러한 생물학적으로 결정된 차이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남녀의 차이는 신체적 차이보다는 출생 순간에서부터 남녀가 분리된 문화에서 살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것이 훨씬 더 강하다. 현재까지 사회, 문화, 정치, 경제적 구조는 성분리를 전제로 해서 만들어져 있다. 특히, 공적인 영역에서 남성의 참여가 여성의 참여에 비해 비대칭적으로 확대되어 있다는 점, 경제적으로도 남성이 여성보다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점, 그리고 여성에게는 아직도 성적 행동에 대한 전통적 규제가 강하다는 점 등은 남녀의 성, 사랑의 인식을 다르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 된다. 다음에서 이야기될 남녀의 일반화된 비교는 개인차와 일생의 주기에 따라 차이가 있기도 하겠지만, 같은 여자끼리 또는 같은 남자끼리는 별로 낯설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흔히 일어나는 일이다. 동성끼리는 새로운 것이 없는 이야기들도 이성에게는 놀랍게 느껴지는 그 차이들을 살펴보자.



2. 분열적인 남성의 경험

인용1

여태까지 제대로 된 성교육을 받아 보지 못했지만 성행위 방식(How to sex)에 대해서 알만큼은 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비공식적인 성교육, 예를 들면 음란 서적, 포르노, 여성 잡지, 경험자들에게

게서 귀동냥으로 들은 정보 등을 나름대로 해석 비판 종합하여 정리한 지식인데 아직 경험이 없어서 그 타당성과 신뢰성에 대해서는 자신할 수 없다. 중학생 때 빨간 책이 범람해서 성애에 대한 환상에 사로잡혔고 옆 짝이 굉장히 음담패설을 좋아해서 나중엔 지겨울 정도로 계속 듣게 되었다. 성애에 대한 강렬한 동경과 두려움이 싹텄지만 두려움보다는 열망이 더 컸고 그것을 자위행위를 통해 환상 속의 여인들과 성행위 하는 것으로 해소했다. '사랑하는 사람과 관계를 해야 한다'는 생각은 해본 적도 없고 다만 성경험이 있거나 많은 친구들-"나 요번 방학에 6명이나 먹었다."고 자랑하는 종류의 친구들-이 선행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면서도 일말의 도덕의식과, 임신이나 성병에 대한 두려움, 성행위 뒤의 내 자신의 변화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전면적인 행위에 나서지 못했다. '성관계 중심 이데올로기'를 대학 2학년까지 갖고 있었지만 그래도 창녀에게는 가기 싫었는데 이건 아마 불결하고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였다.

남자들의 성과 사랑과 결혼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과 태도는 다음의 몇 가지 경향으로 분석될 수 있다.

첫째, 남자들은 성과 사랑을 분리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인용 1의 저자는 성과 사랑이 일치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다. 성을 어떤 사람과의 '관계'로 보기보다는 그림이나 사진처럼 살아 움직이지 않는 대상에 대한 일방적인 행위로 이해하게 된다. 이와 같은 생각과 행동은 여성을 비인간화할 뿐만 아니라 한 인간을 대상화하는 과정에서 얻게 되는 소외를 경험한다는 점에서 남성의 비인간화도 함께 따를 수밖에 없다.

둘째, 남자는 삶에서 성과 사랑이 차지하는 비중을 여자에 비해 낮게 둔다.

성과 사랑에 인생을 거는 것은 남성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성공하면 성과 사랑은 부수적으로 자연스럽게 따라온다고 보기 때문이다. 남성에게는 사회적인 활동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순결은 큰 문제가 안되고 외도도 허용될 수 있다. 남성은 자신의 인격과 정서, 몸과 마음이 상대와 하나로 융화되는 경험을 하기보다 각각의 상황에서 필요한 부분만을 도구적으로 사용하게 된다. 그것은 곧 남성 스스로의 분열적 경험이기도 하다.

셋째, 남자들은 공격적이고 주도적이어야 남자답다고 생각한다. 이는 많은 여성과의 경험은 자랑할 만하다는 생각, 성적 능력 혹은 정력은 남성성의 기준이라는 생각과 통한다. 남성다움을 과시할 성적 능력은 남자들의 강박관념 내지 부담이 되기에 이른 것 같다. 남성들이 갖고 있는 정력이라는 부담은 여성을 정복할 남성다움의 함정에 빠지는 격이다.

넷째, 여자에 대한 남자들의 생각에는 상당한 상호 모순이 있다. 한편으로 여자는 성적 욕구가 없다고 보면서, 또 한편으로는 여자는 무한한 성적 만족을 요구한다고 본다. 한편으로 여자는 신비로운 존재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별볼 일 없는 존재로 여긴다. 이 상호 모순을 해결하는 방법은 여자를 '정숙한 여자'와 '야한 여자', 두 집단으로 나누는 것이다. '정숙한 여자'는 다양한 체험과 쾌락을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매력에 없다.

다섯째, 성관계에서 피임이나 임신은 여성의 몸에 직접 관계되는 일이므로 여성이 책임져야 할 문제이다. 그러나 출산한 아이는 아버지의 소유이고, 자기 자식임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아내

의 정절은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이상은, 세대나 개인에 따라서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남자들이 갖는 생각을 살펴본 것이다. 대체로 남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성, 사랑은 분절되고 조각나 있다. 남자가 보는 여성들은 사랑할 여자(낭만적인 연인), 사랑 없이 성욕 구만을 만족시킬 여자(성적 대상), 결혼할 여자(정숙한 아내)들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여성을 성별 구분 없이 인격체로, 동료로 보기가 쉽지 않다. 특히 주로 남성 중심의 조직, 예를 들면 남학교, 군대, 대기업, 정치권 등 대부분의 주요 조직은 특별히 경계하지 않는 한 이런 여성관을 사회화하고 재생산하는 온상이 되기 쉽다.

3. 주눅들고 움츠린 여자

인용2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성에 대한 지식은 주로 중·고등학교 때 쉬는 시간이나 밤과 후에 애들과 속닥거리며 배운 것과 소위 '하이틴 로맨스'에서 배운 것이 거의 전부가 아닐까 싶다. '하이틴 로맨스'는 수업 시간의 지루함을 이기기 위해서 보곤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정말 저질의 성에 관한 책이 아니었나 싶다. 줄거리는 일률적으로 돈 많고, 잘 생기고, 키 크고 나이가 좀 든, 때로는 이혼 경력이나 아이가 있는 매력적이고 섹시한 남자와 좀 가난하지만 정말 흠잡을 데 없는 젊은(때로는 어린) 여자가 첫눈에 반하거나, 혹은 좀 싸우다가 남자의 일방적인 '추적'에 여자가 행복하게 '굴복'하여 '처녀성'을 '바치고' 결혼한다는 것이다. 애들은 만화가계에서 빌려다가 교실에서 돌려보곤 했는데, 인기 있는 것은 소위 '야한' 것이었다.

남성 중심 사회에 살아가는 여성들의 경우 대부분 남성들의 가치관을 내면화하면서도 동시에 남성과는 전혀 다른 경험을 통해 다른 인식 체계를 갖는다. 남성과 대비하여 성, 사랑에 관한 여자들의 태도와 인식을 살펴보자.

첫째, 여성에게 성과 사랑은 분리되기 어렵다. 성, 사랑 덧붙여 결혼이 통합되어야 가장 이성적이다. '여성의 일차적인 행복은 가정에 있다'는 통념은 가정이 여성의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크게 만드는 사회적 구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신의 인생을 걸 한 남자와의 관계는 평생 일대의 중요한 것이다.

둘째, 남성은 어떤 면이든 존경할 만한 점이 있어야 한다. 나이나 경험도 많고 힘도 세고, 능력도 있고 체격도 크고 인격적인 면에서도 이끌어 주는 남성이 매력 있다. 최소한 어느 하나라도 여자보다 나아서 존경할 만한 점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여자는 남자의 매력을 느낄 수 없다.

셋째, 여자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성관계에서 친밀함과 결속이 더 중요하며 성적 쾌감은 부차적이다. 혼전 성관계는 여자에게 손해이다. 임신의 위험도 문제이지만 그 상대가 결혼을 확실히 약속한 사람이 아닌 경우는 불안하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남자의 성적 욕구를 거절해서 그를 잃기 보다는 붙잡는게 낫다고 생각한다. 비록 여자는 성적 욕구가 없을지라도 자신을 통해 만족을 느끼는 상대방을 통해 대리 만족을 느끼는 것도 사랑의 행위라고 생각한다.

넷째, 여자가 성적 호기심, 관심을 갖거나 성적 욕구를 느끼는 것은 정숙하지 못하고 부끄럽다. 특히 여자는 암시적이고 방어적인 방법으로 성적 욕구를 표현해야 한다. 그러나 거절하는 것은 더 매력 있다고 여긴다.

다섯째, 여자는 성관계를 두려워한다. 미혼 여성은 성관계가 고통스럽다고 말하고 또 임신에 대한 걱정도 성관계를 두렵게 만든다. 피임은 여자가 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때 피해는 여자에게 돌아간다.

이러한 여성들의 생각과 경험은 확실히 남성과는 많은 차이를 갖는다. 얼핏 보면 '남자들의 규범' 보다는 '여자들의 규범'이 우리 사회의 이상적이고 공식적인 규범에 보다 가깝다는 인상을 준다. 그러나 문제는 여성들의 그러한 규범이 스스로 원하거나 선택해서 갖추어진 것이 아니라 그 규범에서 벗어날 경우 남성과의 게임에서 손해를 보거나 상처받게 된다는 깊은 계산을 깔고 있다는 데 있다. 즉 남성 중심 사회에서 주눅들고 움츠러진 약자의 규범일 뿐이다. 남성의 분열적 경험과 여성의 주눅든 모습은 남성 중심의 성문화라는 기형의 뿌리를 가진 한 나무에 달린 다른 모양의 열매라 하겠다.

4. 엇나가는 이중 규범

남녀간의 기대와 행동 방식과 의사 소통의 차이가 이렇게 큼에도 불구하고 남녀가 공존할 수밖에 없는 기제는 무엇인가? 이는 한편으로, 성인 식과 행동을 둘러싼 이중 규범을 통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남녀가 함께 벌이는 게임의 규칙을 통해서 설명이 될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는 공식적으로 성욕구를 은폐하고 큰 비중을 두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성과 사랑이 일치하는 것을 바람직한 규범으로 여긴다. 남자들도 이런 공식적 규범을 완전히 거부하지는 못하고 더욱이 그 규범에서 벗어난 생각과 행동을 때와 장소에 따라 삼가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성에 관한 우리 사회의 규범 자체가 이중구조임을 보여준다. 규범의 이중구조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남자와 여자의 '본질적' 차이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한 규범이다.

다른 하나는 여자를 두 부류로 나누고 이러한 두 집단의 여성들이 존재한다는 믿음이다.

1> 하나는 남자와 여자의 '본질적' 차이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한 규범이다. 남녀의 '본질적' 차이는 생리적인 차이로 간주, 해석한다. 남자는 선천적으로 강한 성욕을 갖고, 이는 억제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억제하는 것은 건강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의 성적 방종, 일부 다치적 행동, 성폭력 등을 생리학적 결정론으로 설명하고 정당화하면서 윤리적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근거로 사용한다. 이와 반대로 여자들은 생물학적으로 남자보다 성적 욕구가 약하고 자제력이 강하다고 본다. 따라서 여성이 남성과 같은 행동을 취할 때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즉 남녀의 차이를 생물학적으로 설명하면서 '생물학적으로 성적 욕구가 약한' 여성에게는 윤리적 규제가 더 강하다는 것이다.

2> 다른 하나는 여자를 두 부류로 나누고 이러한 두 집단의 여성들이 존재한다는 믿음이다.

이러한 믿음은 곧 두 번째 이중구조인 여자들 간의 이중 범주화로 이어진다. 모든 여성은 정숙한 여성과 정숙하지 않은 두 집단으로 나뉜다. 아내나 어머니는 정숙한 여성의 표상이다. 현재에는 정숙한 여성의 성규범도 많이 변화해서 결혼을 언약한 사이에서는 성관계에 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여자들도 많아진 것 같다. 그렇다 하더라도 정숙한 여성만의 존재로는 남성의 성행동을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남성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환상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정숙하지 않은 여성의 존재가 필요하다고 믿는다. 이러한 이분화를 통해 두 집단의 여성은 서로 넘나들 수 없는 분리된 영역에 속하게 되고 상호 반목한다. 그러나 이 두 집단의 여성은 서로의 존재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현재의 이중적 규범과 통념은 이와 같이 여성들에게는 억압을, 남성들에게는 분열과 소외를 경험하게 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과제는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로 여성과 남성은 각기 다른 규범을 갖는 것이 아니라 같은 규범의 기준을 갖도록 하는 일이다. 둘째, 여성에게만 적용되는 '정숙' 또는 '순결'의 기준이 여성들을 분리하여 불리하게 만든다는 점을 두 집단의 여성들 모두가 인식하는 일이다. 그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만이 분리를 극복하는 자매애가 키워질 것이다.

5. 성, 사랑에서 주인 되기

사랑이란 '동시적인 주권의 행사와 서로에게로의 융화'라는 이상을 가능케 할 수 있는 힘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그 힘은 바로 인간이 인간이기 위해서 본질적으로 주권을 가지려는 욕구와 동시에 서로 융화하려는 강력한 욕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힘이다. 미흡하나마 이 글에서 시도한 성, 사랑에 대한 검토는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준다. 여성과 남성은 같은 사회에서, 같은 지붕 밑에서, 한 이불 속에서 같이 살아면서도 사실은 전혀 다른 세계에서 서로 다른 삶을 경험하며 살아간다. 문제는 그 다른 삶이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섞이고 갈등하면서 공존한다는 데 있다. 성, 사랑은 어우러짐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규범과 체계를 가진 남녀의 만남은 갈등과 모순을 겪는다. 특히 그것이 남성 위주의 규범과 체계이기에 여성이 경험하는 갈등과 무순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여성은 자기 자신이 아닌 타자, 남성을 중심으로 자신의 삶을 맞추고 굴절시키며, 결국은 스스로에게서 소외된다. 남성 역시 여성의 억압적 경험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 여성이 소외를 경험하는 한 남성 또한 상대와의 융화를 경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가 남녀간의 조화와 보다 평등한 동반자 관계를 원한다면, 진정한 사랑 관계를 회복하길 원한다면, 그 변화는 어디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사랑을 '동시적인 주권의 행사와 서로에게로의 융화'로 본다면 출발점은 바로 그곳이다. 여성은 자신의 삶을 결혼 제도 안에서 한 남성에게 의존하고 자신의 모든 인식과 태도를 남성을 중심으로 굴절시키기보다 남성과 '동시적인 주권의 행사자'가 되기 위해 온 힘을 모아야 한다. 남성 또한 자신의 조각난 눈앞의 편리와 쾌락 추구가 아닌 '서로에게로의 융화'를 위해 여성의 노력을 지지하고 자신의 변화를 시작해야 한다. 그럴 때에 성과 사랑과 결혼은 어느 한 성이 다른 한 성을 소유하고 이용하는 수단이 아니라 서로를 성장시키고 삶을 풍요롭게 하는 하나의 소통방식으로 자리잡게 될 것이다.

광고에 나타난 여성상

광고는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널리 알림으로써 소비 욕구를 자극하여 사람들이 그것을 만드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기능의 광고는 우리 생활에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현대 문화를 광고 문화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지만, 실제로 우리는 광고 공해 속에서 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 광고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주의 자체를 지속시키는 역할의 큰 부분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상업주의의 꽃'으로까지 불리나 한편으로는 현대의 필요악이라고 불리는 점에서 광고가 가지고 있는 양면성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다.

광고에 대한 비난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광고의 표면적인 목적에만 치중하여 어떤 특정한 광고가 얼마만큼 진실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 가에만 관심이 모아졌으나 이제는 광고에서 상품과 아무런 관련 없이 여자가 광고에서 성적 대상으로 쓰인다는 것이 비난의 새로운 측면으로 등장하였다. 그렇다고 성적인 대상물이라고 하면 과잉 노출, 선정적인 것 같은 성과 바로 이어지는 광고들을 떠올리기 쉽지만 굳이 그런 광고만이 여자를 성적인 대상으로 다룬다고 보면 잘못이다. 그런 광고가 아닌 광고에서 여자를 성적인 대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실제로 더 많기 때문이다.

상품을 소개하여 구매 효과를 높인다는 광고의 기능을 생각했을 때 사람들의 눈길을 끌기 위해 이러한 광고가 제작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으나 한편으로 광고가 우리들에게 끼칠 수 있는 영향을 생각하면 이러한 문제들을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광고에서 나타나는 여자의 모습, 남자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끼치는 영향은 대중매체가 우리 생활에 미치는 그 절대적인 영향과 같기 때문이다.

대중매체가 보여주는 여성상, 남성 상은 어린이들에게는 사회화의 중요한 모델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성인들의 의식구조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의 한 사회학자인 어빙 고프만의 말대로 '남자 또는 여자로서 어떻게 행동하여야 하는가, 또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에 대한 생각'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적어도 광고를 만드는 사람들은 광고하려는 상품과 함께 그들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여자와 남자의 모습들을 광고에서 보여주려 한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그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모습 - 이에 대해 고프만은 선택된 모델, 연출된 배경, 발달된 촬영술 등을 이용하여 실제 현실보다 한결 더 좋아 보이는 유사 현실이 광고에 나타난다고 하였다. - 이 과연 남녀노소 모두에게 이상적인 모습이며 가장 바람직한 모습일까 하는 의문이 떠오르게 된다.

한 어린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최소한 15만 개의 광고를 보게 된다고 한다. 그러나 광고에 나타나는 여성상은 어떠한가. 그들은 모두 어떻게 하면 매력적이 되고, 얼굴을 젊고 예쁘게

가꾸며, 날씬한 몸매를 갖게 될까, 어떻게 하면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집안을 아름답게 꾸밀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사랑 받는 아내가 될 수 있을까에 전념하는 모습들임을 부인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여자는 남자를 위해 있는 존재로 비추어지며 남자에게 서비스를 해주고 남자한테서 지시를 받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즉 남녀 사이가 평등이 아닌 종속적인 관계, 요즈음 흔히 쓰이는 말로 성차별적인 관계로 그려지고 있다.

이러한 성차별적인 광고들이 우리에게 끼칠 수 있는 영향 중에서 특히 아이들에게 미치는 힘은 막대하다. 아이들은 이렇듯 한정적인 모습만을 한 광고에 나오는 여자들을 보고 아직 성숙한 판단력을 갖추지 못한 그들로서는 것처럼 그릇된 여성관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성장한다는 것은 너무나 뻔히 내다보이는 일이다. 심지어 아이들이 등장하는 광고에서까지도 여자 아이는 남자 아이에게 서비스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까지 있어 그러한 그릇된 관념을 더욱 굳혀 놓게 된다.

광고에 나타나는 성차별은 이것뿐만은 아니다. 앞에서 말한 여자가 성적인 대상으로 쓰인다는 면과 광고에 나타나는 역할 면에서의 남성과 여성의 차이 말고도 성차별적으로 나타나는 광고의 여성상에 대해 분석할 측면들이 많다.

첫째, 광고에 나타나는 배경을 생각해 보자. 광고 속의 배경은 광고에 나오는 인물이 맡고 있는 임무나 직업을 상상하도록 도와준다. 대부분의 광고에서 여자는 가정이라는 배경에서 묘사되고 있고 이와는 대조가 되게 남자는 직장이라는 배경에서 묘사된다든지, 아니면 매력적인 분위기에서 여자에게서 봉사 받는 것으로 그려진다.

둘째, 광고에 나타나는 남자와 여자의 자세 및 표정을 들 수 있다. 광고에 나타나는 인물의 자세 및 표정은 남자와 여자 사이의 관계를 간접적으로 이야기해 준다. 여자는 남자에게 기댄 자세, 불안정한 자세, 누운 자세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남자는 굳건하고 자신만만한 자세로 나타난다. 표정 면에서도 여자는 남자를 그윽이 바라보고 있거나, 눈길을 아래로 향하거나, 먼 곳을 쳐다보거나, 아니면 눈을 감고 있는가 하면 남자는 자신에 가득 찬 표정으로 정면을 똑바로 바라보는 모습으로 그려지는 것이 대부분이다. 가구 같은 것의 선전에서 보면 기대거나 누운 자세로 나타나는 인물은 거의 다 여자이지 남자인 경우는 드물다. 남자라고 앉거나 누울 때가 없지는 않을텐데.....고프만에 따르면 이러한 자세들도 역시 성적인 암시를 포함하고 있다고 한다.

셋째, 손길이 남자와 여자가 다르게 표현된다. 여자 손이 광고에 쓰일 때는 물건을 다루어 만지거나, 가리키거나, 살짝 다루어 만지는 것을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남자의 손은 항상 무언가를 움켜쥐고 있는 강렬한 힘의 상징이 된다. 또, 어떤 물체의 윤곽을 따라 표면만을 쓰다듬는 것은 애무를 연상시켜 이것 또한 성적인 것을 암시하는 것이다.

넷째, 권위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 텔레비전 광고에서 화면에는 등장하지 않으면서 상품에 대해 설명을 해주는 목소리의 주인공은 여자보다 남성인 경우가 훨씬 많다. 남자의 목소리가 더 믿음직스럽고 남자가 더 권위가 있다는 고정관념을 그대로 반영해 주는 것이 아닌가. 또 어떠한

상품에 대해 설명을 하거나 이용 방법을 말해 주는 사람은 남자이고 설명을 듣거나 지시를 받는 사람은 여자로 나타난다. 이러한 점은 성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아이들을 모델로 할 때에도 남자 아이가 여자아이에게 가르쳐 주는 것으로, 여자아이를 이끄는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다.

다섯째, 감정적인 면을 생각해 보면 여자는 남자보다 한결 더 정도가 심하게 감정적으로 그려지곤 한다. 대신 남자는 침착하고 초연하며 지성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곤 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이 광고의 남성상/여성상의 차이를 보여주는 총괄적인 것은 아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이제까지는 성적인 대상으로서 여자가 광고에서 이용되는 경우의 문제만이 사회에서 다루어졌으나 앞으로는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 측면에서 고루 다루어져야 한다. 이 중 우리가 하나가 폭력이라는 시각에서의 문제의식이다.

그럼 여자에 대한 폭력은 어떤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는가. 대중매체, 특히 영화에서는 강간/구타 같은 것이 많이 다루어지며 영화 광고에서 여자에 대한 폭력이 집약적으로 나타나는 예가 많다. 이것은 폭력 자체를 아주 미화시키는 일로서 여성이 그것을 오히려 즐기는 것처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폭력을 당하는 여자에게 폭력이란 무섭고 두렵고 아픈 것이지 대중매체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성적인 쾌락은 폭력과 연관되지 않는다. 이런 것은 영화 광고들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지만 일반 상품광고에서도 같은 내용이 은근하게 암시적으로 보여지고 있다.

예를 들어 한 광고에서는 셔츠 하나만 입은 여자가 세 명의 남자들에게 한쪽 어깨가 드러나 보일 정도로 옷이 잡아당겨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자는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웃고 있다. 과연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여자가 것처럼 여유 있게 웃을 수 있을까? 여기서 손들의 임자, 곧 가해자들인 남자들의 얼굴은 전혀 알 수가 없다. 그리고 이 광고의 문구 '말이 필요 있을까?'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처럼 여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는 데는 말조차 필요 없다는 의미를 가진 것으로도 이해될 수 있지 않을까?

또 하나의 예로 팬티를 선전하는 광고를 볼 수 있다. 팬티 광고에서는 여자의 치마가 모두 위로 뒤집어져 있어서 팬티와 다리만을 노출시키고 있다. 이런 때에 여자는 시야가 완전히 가리운 채로 동작의 자유를 잃어버리게 된다. 따라서 여자는 꼼짝 못하는 자세에 있게 되어 있다. 이처럼 여자의 행동을 속박하고 시야까지 가린다는 것은 여자에 대한 폭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광고에서는 폭력이 은근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측면 말고도 광고에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할 것은 남아 선호 사상이다. 갓난 아이들은 남녀 성별을 구분하기가 어려워 분홍색 포대기와 푸른색 포대기로 성별을 구분하는데 광고에서 어린 아이가 나올 때는 그 제품이 여아용 외의 남녀 공용을 선전하는 경우에는 대부분이 남자아이를 등장시킨다. 아주 어린 아기가 등장하는 광고들에는 여자아이라는 확신이 드는 광고, 아니면

여자아이 같이 느껴지는 광고는 거의 없고 대부분이 남자아이 같은 인상을 주고 있다. 그리고 조금 커서 성별을 구분할 수 있을 때에는 일반적으로 전형적인 남자아이의 모습이 나타난다. 이처럼 광고에서는 유아기 때부터 여자보다는 남자에 대한 선호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비록 아들 딸 가리지 않고 한 자녀 낳기 운동을 전개한 가족 계획 운동은 남아 선호가 가족 계획의 가장 큰 장애이기 때문에 '잘 기른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와 '훌륭하게 키운 딸 새 시대의 주역들'이라는 여아 선호 사상을 내걸고 있지만 광고에서는 한 자녀만 있는 가정을 묘사할 때에는 남자아이를 보여주는 경우가 여자아이를 보여주는 경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다. 앞에서 말했듯이 광고에서 보여주는 것은 가장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면 이처럼 남아 선호의 경향이 짙게 나타나는 광고를 보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남자아이를 더욱 더 선호하게 된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광고의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것일까.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광고를 만드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우치게 해야 하고 여기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 볼 계기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몇몇 사람들은 현재 광고를 만드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남성들이라서 그렇다는 말을 하기도 하지만 여자가 만든다고 무조건 그렇지 않은 광고가 제작된다고는 볼 수 없다. 중요한 것은 광고를 만드는 사람의 성별이 아니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의식이기 때문이다. 여자라고 해도 인간으로서의 자유와 권위 그리고 권리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오로지 남자를 만을 위한 존재가 바로 여자라는 남성 중심적인 시각을 갖고 그러한 견해를 자기 스스로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사물을 판단한다면, 그 여자의 사고방식은 남자의 것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게 된다.

이제는 왜 그러한 광고가 만들어지는가에 대해 심사숙고할 때가 되었고 그리고 광고를 만드는 사람들은 여자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광고를 제작해야 할 때가 되었다.

법적인 규제의 강화, 모니터 활동과 압력단체의 활동 그리고 나아가서는 소비자들의 불매 운동들이 광고 여성상 개선의 대응책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남자이거나 여자이거나 광고를 제작하는 사람들의 의식의 변화가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 미국의 전국 광고 심의 위원회의 자체 지침서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광고 제작자들이 '과연 이 광고 속의 여성상은 나의 딸이 그렇게 되어도 좋을 만큼 바람직한 여성상으로 그려졌는가?'라는 질문을 마음 속에 환상 간직한 채 광고를 제작한다면 어느 해결 방안을 사용하는 것보다 빠르고 쉽게 바람직한 여성상이 실린 좋은 광고들이 만들어질 것이다.

일상적 언어생활에

나타난 성차별주의

1. 머릿말...

언어는 인간과 동물을 구별하는 중요한 특징중의 하나이다. 인간은 언어를 학습하고 올바른 언어를 사용하는 일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상황에 따라 적절한 인사말, 사과말 등을 배우고 상스러운 말은 쓰지 않으며 정확한 문장을 구사하도록 교육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의사를 정확히 전달하는 '고운말 바른말'을 익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여성에 대해서는 바르지도 곱지도 않은 습관적인 단어가 묵인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우리의 전통적인 속담에서 드러난다.

-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 여자와 명태는 사흘에 한번씩 패야 제맛이 난다.
- 여자가 셋이면 접시가 깨진다.

우리나라 문자문화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한자역시 여성에 대한 편견이 강하게 나타난다. 자전에 서 女部를 찾아보면 흥미로운 훈들을 발견하게 된다.

奸:간사할 간	妄:망령될 망	妨:방해할 방	妖:요망할 요
妬:투기할 투	姦:간음할 간	媚:아첨할 미	
嫉:투기할 질	嫌:의심할 혐		

이러한 글자는 여성을 인간사의 부정적인 측면과 연결시키는 사고체계를 나타내 주고 있다. 여성을 비하하는 성차별언어는 과거의 유산만은 아니다. 오늘날 대중매체의 생리는 여성을 비인간화시키는 언어문화를 대량생산한다. 산딸기, 예마, 깊은 숲 속 용달샘, 피조개 물에 오르다, 고추밭의 양배추.....등의 영화제목은 한결같이 여성을 남성의 정욕을 채우는 도구로 사물화시키고 있다. 또 TV 드라마의 언어습관들은 제래의 위계적인 남녀관계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남편의 명령조의 반말과 아내의 순종적인 존대말로 구성되는 부부간의 대화는 아주 일반적인 대화 패턴이다.

성차별언어의 문제점은 반말과 존대말의 표면적인 어투나 여성의 비하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성차별언어가 불평등한 남녀의 지위 및 역할체계를 반영할 뿐만 아니라, 이를 유지, 강화시키는 힘을 갖고 있다는 데 있다. 예를 들어 여성이 가사노동과 직장업무를 함께 수행하면서 어떤 실수를 했을 경우, 비난을 받게 되는데 이런 비난은 언제나 기왕의 불합리한 성역할분업을 강화하는 방화용포로 흐르게 된다. 결과적으로 성차별언어는 여성을 억압하는 구조를 형성하는 것이다.

현대사회는 남녀의 평등한 관계를 지향하고 있으며, 그러므로 이러한 성차별언어는 더 이상 당연

시될 수 없다. 남녀의 불평등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의 일부로서 성차별언어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함께 실천적인 노력이 병행되어야 하겠다.

2. 부부대화

가정이라는 장에서의 부부간의 대화형태는 의외로 다양하게 나타나며 일반적인 대화와도 분명하게 구분된다. 자녀문제 의식주문제 등을 결정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부부역할 분담인식은 눈짓이나 분위기만으로도 의사전달이 가능하다는 대화형태의 독특함을 창출한다. 역할분담인식이 개입되지 않은 대화에서는, 또 다른 언어형태로서 남녀지식수준에 대한 인식이 개입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대화형태에서 부-부/남-녀가 동등한 구별이 아닌 차별로서 인식되고, 인식하는 한에서는 부부대화는 차별적 언어형태일 수밖에 없다.

부부가 동등하게 대화를 나누느냐 아니냐에 따라 가정분위기는 윤락해질 수도, 건조해질 수도 있다. 어느 한 편이 명령적 언어를 사용할 때 부부간의 대화라는 것은 다만 착각일 뿐, 명령-복종의 주종관계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한 사람의 의견을 가지고 두 사람이 대화하는 것으로 당초 결론을 강요하는 명령자의 언어 속에서 복종자는 그 결론을 변화시킬 만한 언어를 제시하지 못한다.

이제 부부간의 대화가 일반적으로 건조해지는 경우를 보고자 한다.

요즘은 연애결혼으로 맺어진 부부의 많은 경우가 서로 반말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항상 부부가 동등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대부분의 남편언어는 '-해'인 데 반해 아내의 언어는 '-해 줘'인 경우가 많다.

'물-' 아내 얼굴 바라보며 나지막히 그러나 여운을 남기지 않는 스타카토는 예외 없이 '물 갖고 와'하는 주인의 명령어이다. 간혹 아내의 언어일 수도 있다. 그런데 이 경우 순순히 물을 가져다 주는 남편에겐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미안한 표정을 지은 아내의 무릎에 앉고 있는 아들이 물을 찾고 있는 것이다. 아내가 마실 물도 아니려니와 '물 좀 갖다 주시겠어요?'하는 미안한 부탁의 언어이다. 만일 남편이 하인에게 지시하는 어조로 '물 갖고 와라'고 한다면 아내는 고분고분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같은 명령어임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그 뉘앙스의 비밀을 쉽사리 눈치 채지 못한다. 눈치 채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그것은 당연히 아내가 수행해야 할 역할이므로.

그러나 '물 갖고 와라'하지 못하고 '물'하는 남편은 그 일이 아내의 당연한 역할이라고 주장하기엔 왠지 억지 같다고 느끼고 있기 쉽다. 따라서 남편의 명령어를 아내와 동등한 부탁의 말로 변화시킬 여지는 충분히 있는 것인데, 이는 성차별적 뉘앙스를 눈치 채 아내의 지혜를 필요로 한다. 적어도 아내 스스로가 과잉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남편을 무자비한 명령자로 만들지는 말아야 한다.

3. 직장내 언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꾸려 나가기 위해 경제적 자원을 획득하고자 한다. 그 방

법으로서의 직장생활이 적성과 능력에 적합하고 지속적인 자아실현이 가능할 때, 그는 일에서 기쁨을 느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원론적인 이해만으로 직장생활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다. 그곳에는 각자가 맡아야 하는 역할 외에 눈치껏 수행해야 하는 많은 역할들이 기다리고 있다. 특히 여직원에게는 여성으로서의 역할이 요구된다. 그것이 바로 '직장의 꽃'이며 '보조업무자'로서의 처신이다. 그가 지닌 전문능력에 상관없이 서비스와 단순업무에 한정당한 대졸여사원의 첫 직장생활은 업무과악을 위한 고된 것이 아닌, 예기치 않은 벽에 부딪치게 된다. '여자가 무슨.....' 혹은 '여자가 재법.....'하는 식의 부정적인 서술이 그것인데, 여기에 논박하는 여성의 주장은 골치아픈 반항으로 물리거나, 또는 똑똑한 여자의 마지막이란 어떠한가에 대한 질문은 경교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인격적, 경제적 자립을 위해 힘차게 직장문을 들어선 대졸여성이 맞닥뜨릴 성차별적 언어의 현장을 살펴본다.

1) '남편될 사람이 반대하면....'

여자사원을 채용하는 면접시험관은 특별한 질문을 준비하고 있다. "결혼은 언제쯤 할 예정입니까?" 혹은 "남편 될 사람이 반대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라는 직장생활과 별상관없는 사적 질문이 그것이다. 남자사원을 고용하는 자리라면 "아내가 반대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따위의 질문은 하지 않는다. 결혼과 관계없이 직장생활을 할 것이며 직장생활에 동의하지 않는 남자와는 결혼하지 않겠다는 여자용시자의 대답은 면접시험관을 혼란에 빠뜨린다. 자기 직장에 성실하겠다는 의지에 대한 반가움과 드센 여자가 회사에 들어올 경우 불편함 사이에서 "글쎄, 아무리 그러도....."로 얼버무리는 것이다.

대졸여사원을 처음 뽑는 직장이라면 중요한 또 하나의 질문이 던져진다. 남자사원보다 30분 일찍 출근해서 책상정리를 할 것이며, 커피 심부름을 해줄 것인가를 지극히 묻고 확인해야 한다. 어디까지나 '여사원간의 인화와 사내 분위기를 위해서'이다. 그것도 자신의 업무에 포함되는 것인지를 물으면 규정된 업무는 아니라고 말한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업무외의 플러스 알파가 있고 그 알파가 여성다운 희생정신인 것은 말할 것도 없다.

2) 잃어버린 나의 이름..

직장에서 부모가 지어준 이름 석 자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카다란 특권이다. 입사하는 날로부터 여성의 이름은 사라져 버리고 '미스 *'으로 불리어진다. 남자사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미스터 *'라고 불리어진다면 '미스'라는 호칭이 문제될 것은 없다. 그러나 남자사원은 '***씨'라고 불리게 마련이다. 다양한 개성의 인격체들이 단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사회적 범주를 지칭하는 '미스'라는 호칭으로 그 고유성을 무시당하고 있다. '미스'라는 호칭이 있을 후에 정중한 표현은 어울리지 않는다. '-해' 또는 '-해줘' 정도면 된다. 처음 보는 사원이라고 말을 높이던 남자사원도 얼굴이 좀 익으면 반말을 자연스럽게 사용하려 든다. 조용히 따져 물기라도 하면, "여동생 같은데....."로 오빠의

위치에 있는 연장자임을 강조한다. 물론 경제적 혈연적 우대가 없는 두 남자가 직장에서는 남매 사이가 될 수도 있다.

"미스 *,.....해 줘"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나의 이름은 성이 미씨이고 이름이 '스*'가 아님을 강조하고 나의 이름은 '***'라고 밝히고, 남자사원이 연장자라고 해서 반말을 사용할 자격이 없음을 지적해 줄 수도 있다. 그러나 언어습관은 집요하다. 언어사용자의 의식이 바뀌지 않는 한 고쳐지지 않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 의식변화에 자극제가 될 수도 있는 것도 또한 언어이다. 출발점은 그 말이 감추고 있는 성차별의식의 본질에 대한 인식이다.

또, 한 명의 여자사원의 항변은 골치아픈 여자라는 낙인으로 충분히 해결된다. '미스'라 불리는 여사원의 집합적인 항변이 있다면, 여성은 2등 직장인의 호칭인 '미스'를 버리고 잃어버린 이름을 되찾게 될 것이다.

3)'그 고운 손길로 찌개 좀....'

회식을 하는 자리에서 여자사원을 두고, 셀프 서비스를 한다는 것은 좀 어색한 일이다. 또 식탁에서 서비스하지 않는 여자직원은 눈에 거슬리는 법이다. 부글부글 끓는 찌개를 눈앞에 두고 여자사원이 떠주기를 기다리다 지친 남자사원은 그의 '센스 없음'을 나무란다.

"미스 *, 이런 때 그 고운 손길로 찌개 좀 떠서 돌리면 어때?"

그런 경우에 "내가 흥길동씨 찌개 떠주면 나도 좀 떠줄래요? 나도 흥길동씨의 그 정성어린 손길로 떠준 찌개라면 더욱 맛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럴 바에야 그 남자사원은 자기 손길로 떠먹고 만다. 흥길동씨는 그 좋은 녀석을 깨끗이 접고 식사를 마친다. 가정에서 어머니, 아내, 여동생으로부터 온갖 서비스를 받던 습관은 서비스하지 않는 여성이 거칠게만 느껴진다.

4)'누가 데려갈지 그 남자 걱정된다'

직장생활에서 여성의 20대 후반이란 매우 귀찮은 관심을 받게 마련이다. 직장상사와 동료들은 그가 언제쯤 결혼할 것인지에 대해 물어온다. 그들은 결혼적령기를 일깨워 주고, 여자의 행복이란 이리이리하다는 충고를 잊지 않는다.

"여자는 뭐니뭐니 해도 제때에 결혼해서 집에 들어앉아 남편귀염 받으며 벌어다 주는 돈으로 살림하며 사는 게 가장 큰 행복이지."

전업주부인 자기 아내가 행복하다고 믿는 직장상사는 다른 여자의 행복도 다 그러리라고 생각한다.

"이게 무슨 소리야! 미스 *! 큰일날 소리 하고 있네. 나는 결혼하고서도 직장생활하겠다는 여자를 보면 좀 이상하더라. 남자가 능력없는 사람이 아니고서야 여자를 남자들만 다니는 직장에 내보내려 하겠어? 그리고 애도 낳아야지. 아이고! 여자가 임신해서 배가 나온 모습으로 회사에 나와 봐. 그거 회사에서 좋아하겠어?"

이에 대해 여자사원이 "여성의 직장생활도 이해 못하는 남자라면 어디에 쓰겠어요? 그리고 임신

부의 배나온 모습이 보기 싫다구요? 모성애를 찬미할 때는 언제구요?" 라고 반박하려 하면 더 이상 설득의 여지가 없음을 인정하면서 마지막 경고가 나온다.

"미스 *, 누가 데려갈지 그 남자 걱정된다."

5)'타이프 좀 치지'

남자사원의 직장생활은 가장의 경제행위이고, 여자사원의 직장생활은 가장의 경제행위를 보조하는 일이라고 인식된다. 업무배분상에서 창의적이고 결정권이 많은 일은 남자사원이 담당하고, 여자사원 일은 단순노동에 국한시킨다.

"전화 좀 받지." "타이프 좀 치지." 여자가 있는 부서에서는 타이피스트를 따로 고용하지 않는다. 기존의 여자사원에게 타이프 치라고 명령하면 그만한 인건비가 절약되기 때문이다.

여자사원은 늘 업무회의에서 제외된다. 어쩌다가 급한 일이 생기면 그때서야 업무배분은 비교적 평등해진다. 그래서 여자사원이 일을 배워야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이것저것 물어보면 가까운 눈총이 주어진다. '말많은 여자 골치아픈 여자'가 되는 것이다.

타부서에서 업무문의하러 온 남자사원은 되도록 남자사원을 찾는다. 그가 찾은 남자사원이 문제를 잘 모르고 있을 때, 여자사원이 나서서 "아, 그거요. 제가 아는데요. 잠깐만요, 서류 찾아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고 호의를 베풀어 봤자 소용없다. 타부서의 남자사원은 그냥 나가 버린다. 묻지도 않은 말에 대답하는 여직원의 태도는 호의라기보다 무례로 받아들여진다. 무의식중에 '여자가 말참견을 하는' 것에 대한 무시가 표현된다. 그들에게 있어서 여자사원의 교육업무는 따로 있기 때문이다.

4. 대중소설의 성차별언어

대중소설은 지금까지 살펴본 가정과 직장의 경우처럼 구체적인 현실의 장은 아니지만, 현실을 투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잠재적인 현실이라 불러도 무방하다. 특히 대중소설은 매스미디어와 더불어 사람들의 의식 속에 은연중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생각할 때, 그 속에서 나타나는 성차별언어의 규명은 구체적 현실의 불평등한 언어습관들에 대한 지적에 못지 않게 큰 의미를 지닌다. 또한 가정과 직장이라는 현장에 비하여 대중소설에는 작가의 의식에 따라 성차별언어 사용의 불식이 보다 용이할 수 있고, 이것이 다시 대중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갖는다.

여기서는 대중소설 가운데 베스트셀러로 알려진 최인호씨의 자서전적인 소설 '가족'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그 속에 나타난 성차별적 묘사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가족'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그 속에 나타난 성차별적 묘사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가족'은 월간잡지 <샘터>에 10년간 연재된 것을 모아 단행본으로 출간한 소설이다. 이 책은 가정의 일상사를 다룬 논픽션이며 각색되어 TV드라마로 방영된 바도 있는 점에서 대중소설의 대표성

을 지니고 있다고 평가내려도 무방할 듯하다.

이 소설에서 작가는 '나'라는 화자를 통해 그의 가족을 묘사해 내고 있으며, 그 속엔 작가 자신의 어머니, 아내, 딸, 여성일반에 대한 사고방식을 담고 있다. 따라서 이것을 분석하면서 대중소설에 나타난 성차별적 요소들을 지적하고, 그 의식의 한계를 살펴볼 것이다.

1) 어머니

'나'의 어머니는 일찍 남편을 여의고 6남매를 키우느라 갖은 고생을 했으며 이제 자녀들이 모두 장성하여 다소 여유를 갖게 된 칠순이 넘는 노인이다. 자녀가 살고 있는 미국을 다녀온 칠순 되신 어머니의 손톱을 보고 나는 어머니의 뒤늦은 '여성 자각'을 확인하고 이를 '자유의 자각'이라고까지 확신한다.

1. ".....그 어머니가 일흔이 다되어서 손톱을 기르시고 매니큐어를 칠하신 것이다. 나는 이것이 독립 2백주년을 맞는 미국의 선물이라고는 생각지 않으나 어머니에게 새삼 여성임을 자각시킨 이 서구적 사고방식이 결코 우리가 맹목적으로, 혹은 막연히 성별해서는 안될 자유의 자각이라고 확신한다. 칠십노모에게 꽃피우게 한 여성자각의 사상이 거기서 싹트게 한 것이라면 나는 반성할 수밖에 없다."

'나'는 어머니의 나이를 묻자 대답을 꺼려하는 대목에서 '나'는 다음과 같은 평가를 내린다.

2. "하기야 어머니는 노인이라기보다는 여성이시니까 아직까지도 나이를 대답하기 싫으신 모양이고 늙기조차 서러우신데 나이를 묻는 내 심보가 교약스럽게 여겨지실 것은 분명하다." (p.136)
그리고 '나' 자신의 '정서미숙아적 기질'을 막연히 아버지의 부재, 다시 말해 어머니의 영향 탓으로 돌리고 있다.

3. 아버지가 열 살 때 돌아가신 탓으로 "아버지의 영향보다는 어머니의 영향을 받으며 자라나 정서미숙아의 기질을 다분히 가지고 있는 편이다." (276)

작가는 어머니에 관한 묘사를 통해 여성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는 셈이다.

1. 여성으로서의 자각은 외모를 치장하는 데 있으며 자유롭게 외모를 치장하는 여성은 인격적으로 자유롭다. 2. 나이 든 여성은 열등감에 차 있다. 3. 편모슬하의 아들은 정서미숙아가 되기 쉽다.

2) 아내

'나'와 아내는 대학 동기로서 '나'보다 7개월 먼저 태어났다. '나'는 이런 아내에 대하여 존대어를 쓰도록 강요함으로써 남편의 권위를 찾았다고 인식한다.

1. "그래서 조금쫘은 남성의 권위를 되찾고 싶어서 나는 결혼 전에 '야, 야, 너 결혼하고 나서 두 인 호야 밥먹어 그럴래'하고 눈을 부릅떴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아내는 내게 차츰 존대말을 쓰며 나

를 '보여- 보여-' 부르기 시작했다..... 물론 지금은 자연스럽게 최고 경칭이 사용되곤 하는데 놀랍게도 부부싸움할 때는 연애 시절의 그 쌍스럽고, 야비하고, 버릇없고, 교양없고, 되어먹지 못한 반말지거리가 튀어나오는 것이다..... 누가 도대체 요즘 여인들의 교육을 시키고 있는가." (p.79)

'나'의 일상적 반말지거리는 '남성의 권위'의 상징이고 아내의 반말지거리는 '쌍스럽고, 야비하고, 버릇없고, 교양없고, 되어먹지 못한' 것이라는 견해이다. 아내를 통해 본 여성 일반의 직업관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단언을 내리고 있다.

2. "흔히들 여인들은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대부분 결혼할 때까지 소위 사회를 경험해 보겠다고 직장생활을 하곤 한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직장생활을 하건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직장생활을 하건 여자들의 직장생활은 결혼과 동시에 끝나게 되는 법이다."

3. "아내의 직장생활은 전혀 나의 환경 여하에 따라 끝이 날 수 밖에 없었다."

'나'는 여성들의 직장에서의 '잠무'의 부정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그것의 해결을 직장생활의 탈피에서 찾고 있다.

아내에 대한 묘사에서 나타난 작가의 의식은 다음과 같다. 1. 연인관계는 평등하나 부부관계는 지배-복종 관계다. 따라서 아내가 남편에게 반말을 써서는 안된다. 2. 여자의 직장생활은 결혼과 동시에 끝난다. 3. 아내의 직장생활은 남편의 사정에 좌우된다. 4. 대졸여성들이 직장의 온갖 잠무를 하는 것은 안됐지만 어쩔수없는 일이다.

3) 딸

나는 남매를 자녀로 두었는데 딸이나 아들이나를 놓고 바라는 기대가 사뭇 차별적이다.

딸에 대해서는 바라는 미래상은,

1. "결코 나는 다혜에게 위대한 피아니스트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 예술가의 길은 힘들고 더구나 여자로서의 예술가는 불행과 고난의 길이라서 나는 행여 장난처럼 나중에 다혜가 아빠 흉내를 내서 고등학교 문예낭독회 때 '노오란 은행일이 폐병 걸린 오누이의 기침소리처럼 떨어지도다'라는 감상적인 시를 읽는 문학소녀가 된다면 다리뭉둥이를 부러뜨리겠다고 공언하고 다니곤 했었다. 나는 그저 다혜가 감수성이 풍부한 여인으로서는 예쁘고 매력적인 미인이 되어 평범한 가정주부가 되기를 바랄 뿐이지 여류명사가 되어 주기를 원치 않는다."

이 딸의 요지는 다음과 같은 것이다. 1. 여자 예술가나 여류명사는 불행하고 힘든 삶을 산다. 평범한 가정주부가 되는 것이 딸의 행복이다.

이른바 '현모양처'의 이데올로기가 딸의 사회화 과정에 본격적으로 도입되고 있는 것이다. 인간은 자신이 자라는 생활환경에 따라 자아성장을 위한 선택이 제한되게 마련이다. 그런데 유독 여자아이의 경우는 어렸을 적부터 무조건 '현모양처'의 미래상만이 주입되어 다양한 자기개발의 가능성이 일방적으로 차단되는 현실을 반영해 주고 있다.

한편 '나'는 아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낙관적 기대감을 표현하고 있다.

1. "아들녀석은 딸보다 나이도 어렸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남자만이 가질 수 있는 낙관을 획득하고 있었다."

2. "이봐, 여자란 것은 말이다, 별게 아니다. 니가 이담에 무엇이든 이론 훌륭한 사람이 되면 여자는 자연 네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되어 있는 거란다. 큰 여자도 네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다?" 어떤 난제에 부딪친 어린아이에게 순간적으로 무심코 던져진 충고가 일생 길이 새겨지는 경우를 흔히 본다. 아이는 그런 식으로 의식의 한 구석을 채워 나가기 시작하는 것이다. 작가가 아들에게 심어 주는 교육관은 1. 여자는 성공한 남자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되어 있다는 세속적 영웅주의이다. 마침내 작자의 영특한 아들은 아빠의 가르침을 소화해 냈다. "알았어요, 아빠. 그러니까 여자는...로구나." 감격한 남성우월주의가 2대에 걸쳐 재생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4) 여자일반

여자일반에 대하여는,

1. "아무래도 입이 가벼운 쪽이 남자보다는 여자쪽이지만..."

2. "...여자 나이 스물넷이면 이미 대부분 장래에 대한 어떤 확신이 서 있을 나이였다. 일테면 이미 대부분 연애를 걸었던 중매를 통해 선을 보았던 확실한 직업의 남편감과 전도유명한 애인에게 장래를 맡겨야만 하는 중요한 고비의 나 이었다."

작가는 1. 여자는 수다스럽다 2. 여자의 일생은 남편의 능력에 달려 있다는 것을 자신 있게 말하고 있다. 일상적으로 거론되는 여자에 대한 구설수를 집약적으로 표현해 놓고 있다. 따라서 이 소설의 독자는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된다.

본글에서 분석의 대상에 오른 소설 '가족'은 그런 여성상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변화하는 사회속에서의 다양하고 새로운 여성상을 찾아보기 어렵다.

지금까지 부부대화, 직장 내 언어, 대중소설의 여성묘사에 나타난 성차별언어를 불합리한 역할기대와 관련시켜 살펴보았다. 성차별언어가 사라지는 것의 전제조건은 평등한 남녀관계의 수립이다. 사회의 모습이 평등하게 될 때, 성차별언어는 설 땅을 잃고 만다.

그러나 역으로 언어의 변화가 사회변화를 촉발시킬 수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1960년대 미국 여성운동의 성과로 등장한 Ms. (Miss와 Mrs.)라는 단어는 혼인신분에 따른 편견을 고치는데 크게 기여한 바 있다.

성차별언어를 변화시키려는 노력은 기존언어의 성차별적 요인들을 지적하고 제거하는 일과 더불어 이를 대신할 새로운 상징어를 창조해 내는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두 방향의 노력이 함께 수행될 때, 성차별언어를 바로잡으려는 노력은 평등사회의 실현을 앞당기는 촉진제가 될 것이다.

그림으로 배워보는 피임법

콘돔 끼우는 법

정액 모으는 곳



① 포장에서 꺼낸다



② 정액 모으는 곳을 비틀어 안에 있는 공기를 뺀다



③ 발기한 페니스에 끼운다



④ 성기 끝까지 끼운다



이런 점에 주의하자

콘돔 쓰는 법



① 사정이 끝나면
콘돔을 잡고 페니스를 뺀다



② 정액이 흐르지 않도록 하면서
콘돔을 페니스에서 벗긴다



③ 입구를 단단히 묶는다



④ 티슈로 싸서 휴지통에 버린다



보관할 때는
직사일광과 습기에 주의한다. 20도전후라면
7-8년은 보관할 수 있다. 그러나 사서 쌓아두지 않는 편이 좋다.



나프탈린 같은 것도 질색이다.

필은 정확히 복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필 복용법



① 월경 5일째부터 매일 한 알씩 복용한다.



② 21일간 먹으면,
2-3일 뒤에 월경이
시작된다.



③ 월경이 시작된 날부터 5일째
복용을 다시 시작한다.



④ 다음부터는 계속 반복



하루 잊었으면
다음날 두 알 먹는다.



2일 이상 잊었으면
다른 피임법을 병용한다.

저용량 필 복용법



① 월경 1일 때부터 복용한다.



② 21일간 먹고, 7일 쉰다. 계속 반복한다.



③ 12시간 이내에 알았으면 곧 복용한다.



④ 12시간 이상 지나서 깨달았을 때는 다른 피임법을 병용한다. 만일 먹는 것을 잊었으면.....

멋진 필름은 보조피임으로 이용하라





피임의 비교경제학

1회당 이만큼 든다

젊은 당신에게 있어서는 피임하는데 얼마 드느냐는 것도 아주 절실한 문제다.

아래 표를 보고 비교해 보자.

피임법	기초체온법	콘돔	필	정제
가	체온계는 1,500원	1상자(10-12개) 1,000원-1,500원	1,200-4,000원	12알 2,000원
비	기초체온표도 필요	자동판매기는 약간 비싸다	초진료 3,000원정도	시간이 길어지면 추가
사	10.2%	82.2%	1.9%	0.6%